朝鮮日報
夕刊 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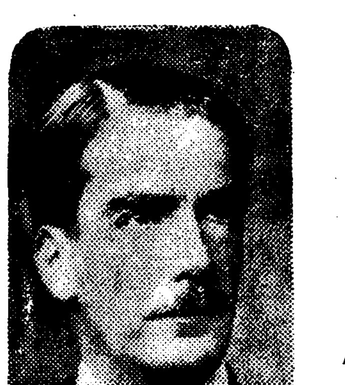
獨逸側의라인占據는 國際條約侵犯行爲

道義的反獨共同宣言發表意見一致

佛國代表要望遂達成

【倫敦十二日發電通】獨逸의라인란트進軍의 善後措置를 協議키爲하야 招集된英、佛、伊、白로카르노 條約國會議는 十日巴里에서 열린 序幕的會合에 뒤니어 十二日午後五時五分(日本時間十三日 午前二時五分) 英國外務省 一層 閣議室에서 開會되엿다 重要한 出席者는 左와如하다。

▲英國 이-든外相、할리팍스國璽尙書 ▲佛國 플랑당外相、쿨망駐英大使 ▲伊太利 그란디駐英大使 ▲白耳義 반젤란드



【倫敦十二日發電通】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十二日午後五時五分부터 七時四十四分까지(日本時間十三日 午前二時五分부터 四時四十四分까지)續行되엿는데 爲先四國代表全體會議를 開催하고 一般討議에 들어가 英佛間에 여러가지로 應酬가잇슨結果 플랑당佛外相의 要請을 容認하야

一、獨逸의 라인란트再武裝은 베르사이유、로카르노兩條約의 明文에反하는 明白한 國際條約侵犯이라고 認定한다는旨를 英、佛、伊、白四國一致로 嚴肅宣明할것

一、로카르노條約國은 聯盟理事會의 右事件에 關한 活動과 協力하야 事態의 解決을 圖할것

等二項을 滿場一致로 可決하니 佛國의 第一段이 對策인 道義的反獨逸共同宣言發表의 希望이 達成되여 正式콤뮤니케로 이것이 公表케되엿다。

다음에 具體策、善後策을 考究할 便宜上各國首席代表로 構成된 小委員會를 組織하야 事態의 詳細한 實情檢討로움마 各自報告及 意見을 交換하고 十三日 다시 小委員會를 續行하기를 約하고 倫敦에잇서 初會合을 終了하엿다。

(寫眞 上 이-든 下 플랑당)

로카르노條約國會議內容

共同宣言의內容

【倫敦十二日發電通】十二日午後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左와如한 콤뮤니케를公表하엿다

라인란트 非武裝地帶의再占據는 베르사이유條約及 로카르노條約의 明白한 侵犯을 構成한다는것은 諸國代表에依하야 一致承認되엿다 이點을嚴肅히 宣言함은 佛國及白耳義로부터 右事件에對하야 移牒을바든聯盟理事會를爲하야 有効하게될것이다 다음에 右事態에對하야 一層詳細檢討를便케하기爲하야 英、佛、伊、白의 首席代表는 小委員會의 形式으로 會合協議키로하엿다 이委員會는 明日午前에도 續開될것이다

聯盟理事會 開會延期意向

【倫敦十二日發電通】로카르노條約國會議出席으로 當地에 參集한 右條約調印各國代表者間에는 來十四日 當地에서 召集豫定의聯盟理事會를 來週十六日乃至十七日로 延期하려고 하는意向이잇스나 此는 理事會開會以前에 로카르노條約調印國間에서 十分意見을 交換하야 獨逸에 對하야 取할對策에對하야 遺漏업는諒解를 遂하기爲하야 時間의餘裕를 가지려고하는 英國政府의 希望에서 나온것으로서 現在로는 로카르노의 條約調印國의 大多數는 各自國의 立場으로 獨逸强硬措置를 固執하는佛國支持의態度를 採擇하려고 하는形勢가잇는關係로 英國政府에서는 自國의孤立化를 防止하는意味에서 理事會延期强要의 一石을던지려고하는것인듯하다

善後策에對해서는 英佛意見對峙

首席代表委員會構成

【倫敦十二日發同盟】로카르노會議는 十二日午後五時十五分 英國代表이-든外相司會下에 外務省會議室에서 討議一時間半을 繼續한 獨逸의라인非武裝地帶侵入은 베르사이유二條約第四十二條及 라인保障條約違反이라는데는 一決되엿스나 善後策에 對하여는 佛白兩國代表의 强硬意見과 英國代表의 穩健論이 서로 對峙되여 容易히 決定되지못하고 結局首席代表로 構成된 委員會에서 愼重檢討를 加하기로 決定하고 午後七時四十五分 散會하엿다

上海紡績罷業惡化

【上海十二日發同盟】裕豐紡績罷業은 赤色分子의 指導를바더 一層險惡化하야 다시 十二日에至하야 大康紗廠의 一部職工도이에 罷業을 하엿는데 同紗廠의 職工은 압서 二七日當日 不穩한 行動이잇서 當局은 嚴重警戒를 繼續해오든이다 그리고 지금다시 他의 日本人經營紡績會社에도 波及될形勢에잇다 二主要한者는 同興紗廠、公大公司、內外棉紗廠、日華紗廠、上海紡績、裕源公司、東華紗廠、豐田紗廠等으로 모다 動搖中이라 工部局에서는 萬一을警戒中이다

이-든外相 獨逸大使께警告

【倫敦十二日發同盟】英國代表이-든外相은 十二日午後 緊急閣議終了後 即時 獨逸大使헤쉬氏를 外務省에 招致하야 獨逸軍이라인란트非武裝地帶에 侵入한 結果 歐洲의 繼勢는 顯著하게 重大化하게 되엿다는것을 指摘하고 英國、佛國、白耳義、伊太利四國代表가 緊急對策을 協議하기前에 히틀러總統의 誠意를披瀝하야 自發的으로 何等의和協手段을 取하도록 警告하얏다 右提議는 即時 獨逸大使로부터本國政府에 通達되엿는데 獨逸政府는 各要請에 應諾치안코 即座에 次와如한 回答을하얏다

一、獨逸政府는 라인領域에關한 自國의主權을 一時的으로 永久的으로 限定함과 如한 一切의交涉에 應諾할수업다

一、獨逸政府는 今回의 平和的 諸提案의成立을 期待하야『表象的』으로 라인란트非武裝地帶

佛蘇包圍政策을 獨政府痛烈히攻擊

로카르노條約國會議開會直前에 公式콤뮤니케를發表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政府는 十二日午後 倫敦에잇서 로카르노會議開會를압두고 公式覺書를發表하야 佛蘇兩國政府의 外交包圍策을 痛烈히 論難하얏다 覺書要旨는 次와如하다

一、佛國政府는 로카르노體制確立에압서 白耳義 체코슬로바키아、波蘭三國政府間에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더욱 全線에亘하야 彪大한 要塞地帶를 構築하고大軍을 集結하얏다

一、獨逸政府는 以上佛政府의行動에對하야 敢히 異議를挾하지안는다 그러나 世界革命의 旗幟下에 帝國主義的 侵略工作을 遂하는蘇聯政權과 相互援助條約을締結한 佛國政府의外交政策은 全혀새로운性質을帶하기에至하얏다

一、右相互援助條約에서는 聯盟理事會乃至 로카르노 各國政府는 全然關係업고 兩當事國은 侵略國으로 決定한다는 旨를規定하야잇고 如斯한 條約을 締結하기 前에 佛白政府는 로카르노 各國間에 充分妥協을 遂하여야할것이라고 信한다

一、獨逸政府는 佛國國民은 脅威할念慮가업는 一切의行動을避하고 今回에 十九個大隊를 라인란트에 派遣한데不過하다 佛國政府는 各盟邦의 支持에 依하야 戰時三百萬의 大軍을 即時動員할地位에잇다 獨逸軍의 非武裝地帶進出로 同國의安全이 脅威될이라고는생각지안는다

一、佛國、蘇聯兩國政府는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한結果 獨逸政府는 로카르노體制로부터 脫退하야 國際平和補强의 新提案을 提議할수밧게업게되엿다 右提案에對하야 各國政府가 交涉妥協함에잇서서는 獨逸政府는 交涉期間中 라인란트駐屯軍을 更히더욱 增加치안흘것을 公約하겟다

一、그러나 獨逸政府는 如何한 事情下에잇서서나 自國의 主權을 放棄치안는다 差別待遇를 基礎로하는 平和工作이 한가不安의 씨를 將來에 남길것을 獨逸政府는 確信하야 疑心치안는바이다 各國政府는 平等의 基礎에 立脚하야 自由로운 決定에 基하야 平和工作을遂行할때 獨逸政府도 또한 充分 國際公約을 尊重할것이다 各國政府는 以上의事情을 諒察치안코 此等建設的提案에도 同情으로서 考慮할 雅量이업스면 獨逸政府는 平和的努力을 一切撤回하고 國際政局에서 孤立하드라도敢히不惜한다

(寫眞은 히틀러氏)

新內閣과今後政局

議會政治危機、國家主義熾盛

重要政策의遂行은期待困難

廣田內閣은融通無碍

(三) 金麟伊

今般政變에 意外의 損害를 當한것은 政黨이다 政府與黨으로 總選擧에 第一黨의勝利를 獲得한 民政黨과 反對的野黨인 政友會가 萬一政界情勢가 그대로 安定되고 岡田內閣이 持續하엿스면 非常時國策을 가지고 堂堂하게 公明한 政論을 싸홀수잇다 따라서 五、一五事件以後 一路 沒落의過程을 밟버나가든 議會政治도 二大政黨을 中心으로 運營하게쓸되야 政黨의 信用도 恢復할수잇섯슬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全然 이와는 달리 無爲無能의 誹謗이 만튼 岡田內閣은 重年의 面目을세우지못하고 倒壞하엿다 後繼內閣인 廣田內閣은 民政黨과 政友會를 一視同仁格으로 閣僚가를 兩個의 椅子가 配定되엇슬뿐이다 組閣當初에는 內務와 文部의 兩相을 政黨側으로 入閣식히려하엿스나 軍部의 反對로 伴食的地位로 敬遠되고말엇다 昨日은 總選擧壇의 敵對陣黨에서 자우다가 今日은 吳越同舟의몸이아니다 議會政治의 中流로부터 蹴下하야 伴食的地位의 存在를 不得已하게된 政黨과 政黨人은 憤慨無量한바 업지안흘것이다

廣田內閣은 軍部의 强硬한要求를 無條件으로 全面的容認을하엿다 또組閣의妥協工作에잇서 最後의 廣田對寺內、永野會見에는 人事問題보다 도리여 政策問題에重要性을 두고 進行하것으로보아 內閣組織의 過程으로부터 軍部의 意向을 如實히反映하여와다 따라서 今後의廣田內閣을 指導操縱하여가는것은國家主義思想下에 政治의 根本的改革을 企圖하는 軍部中堅層의로보는的代表者와 代辯者일것이다 그럼으로 政府의 政策遂行에잇서 重臣官僚 政黨 財閥等現狀維持派를 代表又는 代辯하는政黨出身의 四閣僚와 이에 準하는者는 結局 軍部의 提示하는 諸政策에 無條件으로 追隨하는수밧게업슬것이다 過般의 總選擧에잇서 不充分하나마 選擧民에게 公約한 政綱을 實行하려고 邁進할 勇氣는 現下의 超非常時局에 잇서 意氣悄沈한 政黨에 少毫라도 期待할수 업슬것이다 廣田首相이 組閣工作中에 融通無碍 하게도 忽然軍部의 時局認識과 가티 變質大轉換을 試하엿스며 馬場藏相은 高橋財政의 修正이니 經濟機構의 改革이니 現狀打破의 不可避니 떠들어 聲明書를 두번식이나 내이어 一方으로는 軍部의 財政政策에 追隨하는듯 또 一方으로 一般財界의 急激한變化를 忌避하는 傾向에一考를하는듯하야 曖昧한 財政論을 하는것을 보면 어느 閣僚를 勿論하고 自己의 確乎不動한 所信에 依하야 政策을論하며 政策을 遂行할 氣魄이 보이지안는다 不過伴食的 四椅子를 占한 政黨으로서 政黨本來의 使命 또는議會政治의 常道로 도라가게쯤 奮鬪한다는것은 全然 期待할수업다

廣田內閣의 組閣의 過程이如斯하고閣僚의 約變自在하기 如斯할뿐아니라 軍部中堅層이 國政改革에 對한 國家主義的 信念과 熱意가 매우 鞏固하고 熾盛한 現下 日本政情에 잇서서는 政黨은 더욱 受難時代에 陷入하야 참말 議會政治의 危機가 追到하엿다고 볼수잇다。

다음에는 新內閣의 諸政策을 打診하여보자 廣田內閣의 政綱은 아즉 調整되야 正式으로 發表된것은 업스나 組閣前後의 廣田首相의 聲明、馬場藏相의 聲明、陸海軍의 新政綱에 對한 要求提示等을 보면 其政綱도 大體 推知할수잇다。

첫재로 岡田內閣時代에 一時內閣의 致命傷이될번한 國體明徵問題에 對하야는 陸軍에서 入閣條件의 第一項目으로 提示하엿고 廣田外相 亦是 이것에 對하야 聲明하엿다。그런데 內閣成立數日後에 一木樞相의 辭職이 傳하나 政府內의 機關說派一木、金森兩氏 이미 辭職하고 專任文相就任하면 官私立學校의 機關說著者를 모조리 罷免排斥한다니 國體明徵에 關하야는 今後 一般에게 所謂 敎育的 匡正밧게 남지 안케會것이니 內閣의 實務는 그다지 重大하지 안케 되엇다 다음에는 肅軍의 徹底가 問題이다 陸軍當局者의 言動을보면 肅軍云云을 政綱에 내거는것을 실혀하는듯하나 今般事件을 契機로 肅軍問題는從來와가튼 軍內部의 問題가아니라 國政의 重要問題로 登場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肅軍은 人事의 異動과 一部의 豫備役編入等의 技術的問題가아니다 完全한 肅軍을 하려면 무엇보다 軍部中堅層이 抱持하는 政治經濟改革思想에 依한 庶政의 改革과 農林問題의 根本的解決을 하는것이 捷徑일것이다

廣田內閣은 國防의 擴充에伴한 財政政策의修正 産業의 軍事的編成과 統制經濟의强化 重農主義의 徹底等여러가지 政策을 提示하는 하고잇스나 自主的色彩가 極히 薄弱하야 獨自的經綸을 實行치못할 廣田內閣은 組閣途上에 數次의 蹉跌을한經緯로보아 今後 難問題에 逢着할때마다 內部紛糾가 續出할것을 容易히 想像할수 잇서 果然 前記의 重要한 政策을 遂行할수잇슬가 經濟機構나 政治機構에 根本的改革을하려면 確乎不動한 信念과 不拔의氣魄이 必要하다 그런데 上에融通無碍한首相과 下에 約變自在한 藏相을 가진廣田內閣에게 이能事業의 遂行을 期待수잇슬가 (續)

特別議會召集

五月一日로內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特別議會의召集에 關하야 十三日의閣議에서 協議한바 잇섯는데 召集日을 五月一日 期間은 三週間으로하기로 內定하얏다

駐屯軍强化에 司令部意見一致

【天津十二日發同盟】中國駐屯軍司令部는 磯谷少將을 마지하야 十二日午後 幕僚會議를 開催하고 特히冀東政權及 共產軍의 進出에對하야 意見交換을 遂한結果 左의結論에 到達하엿다

一、共產軍이 山西省內로 侵入한結果 北中의 治安은 重大脅威에 當面하게되엿다 但軍으로서는 共產軍의 動向과 同時에 山西省에入한 中央軍의 行動도 嚴重監視하야 河北治安維持의 萬全을 期함

一、如斯한 事態에鑑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駐屯軍의 强化를 實現할 必要가잇다고 認定함

그리고 磯谷少將은 十三日北平에赴할豫定이다

獨逸과 一戰도不辭

佛政府와强硬決意

【巴里十二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無軌道的外交에 佛國國民은 極度로 激昂되여 獨逸軍撤兵을 强要하고잇는데 佛國政府當局도 斷乎强硬政策에 依하야 禍根을 斷切할決意이라고 解釋되다 政府는 獨逸과의 一戰도 不辭할 決意를 示하야曰 獨逸軍의 라인 非武裝地帶로 進駐한結果 劃下의情勢는 今後 一個年後에는 엇재든獨逸軍과 一戰을 交하지안흐면안되다 一戰을 避하기難한다고 하면 現在佛國軍에 充分準備가 되여잇는此際에 斷乎 獨逸軍을 膺懲함이 得策이라고思한다 플랑당外相도 獨逸軍의强化가 完成되면 戰爭을이르켜 大規模의 殺人行動을 誘致하는 것보담 此際 豫防的 戰爭을 斷行하는것이 차라리 낫다는 意見이다 라인란트 非武裝地帶에 進駐를完了한 獨逸軍은 佛國政府의 推定에依하면 九萬이라고 觀하는데 佛國軍에서는 이미 安全保障計畫에 基하야 國境線一帶에 鐵壁城가튼 强力部隊를 集結하고 다시必要한때에는 國境地帶에 豫備部隊도 動員하면 獨逸軍을制壓하기에 充分하다고 보고잇다 佛參謀本部에서는 戰爭이 擴大되면에는 友邦蘇聯波蘭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各國軍의協力을 仰하야 前後 四十八時間에 八百萬人의 大軍을 動員하야 八隊의 空軍에 依하야 獨逸軍을 包圍하고 一擧에 撃滅할수 잇다고 要望하고잇다

一、獨逸政府는 目下右部隊를다시增加하야 乃至佛白兩國의國境線附近에 進駐할意圖는업다 但 佛國、白耳義兩國政府에서 一도 國際의 兵力을 取할것을 必要로하다

正規軍을 派遣하기로한다는것을 關係國政府에對하야 說明하고 또 라인란트進駐部隊의 編成內容도 이미 伯林駐劄英佛兩國武官에 通達하얏다

英米兩國代表

太平洋防備問題協議

【倫敦十二日發同盟】米國軍縮代表一行은 新海軍條約調印終了와 同時에 近日中 三個月만에 歸國하기로 되엿다는데 確聞컨대 英米兩國代表는 太平洋防備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할 意向이라 한다 英米兩國代表는 今回의海軍會議中 新聞이問題를 가지고 論議하고잇스며 非公式으로 어느程度의 諒解가 成立되고잇다는것은 疑心할 餘地가업스며兩國代表部는 會議散會까지 再次좀더 具體的協議를 遂하야 相互充分意見交換을 遂하리라고觀測된다

滿中貨物直通

五月一日에實施

【奉天十二日發電通】冀察政府의 誕生으로 急速實現이 待望되고잇든滿中間 直通貨物 連絡運輸는 三月六日 天津에서 滿鐵及鐵路總局代表 坂井鐵路總局總務處長과 北寧鐵路局長 陳覺生氏의間에 協定이 成立되여 正式調印을 行하고 來五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얏다는旨를 十二日에 發表하엿다 連絡貨物取扱驛은 滿洲國鐵五十五驛 北寧鐵路十五驛으로 滿洲國鐵全部와 北寧鐵路의北平 天津의 兩驛에 限한다 그리하야 右協定의 成立은 大正四年來의 懸案을 解決한것으로 滿洲對北中의 交通經濟關係는 一層緊密化할것이다

遞信局辭令

平壤郵便局在勤 遞信書記 大町辰次

命遞信局監理課 係長

八面鋒

◇힘 잇는 政府의 實施는 制度의 改正으로부터——航空省、宣傳省新設、産業省、交通省의 倂合、拓務省의 廢止、뷰-로크라시의 創設。

◇이리하면 軍部에서 二大臣增加、政黨、官僚에서 三大臣減少、게다가 無任所相이 軍部에서나면 軍部出身閣僚는 合五人。

◇佛國態度의 强硬으로 英國도 原則的 佛國 支持를 表明。

◇原則과 例外는 別問題。英國의 뒤거리질할 機會는 언제든지 準備。

◇大本敎에 鐵槌가 나리어。朝鮮서는 왜 邪敎를 取締치못하나?

◇天子를 말하는 者、愚夫愚婦를 弄絡하야 財産、貞操를 빼앗는 者、不知其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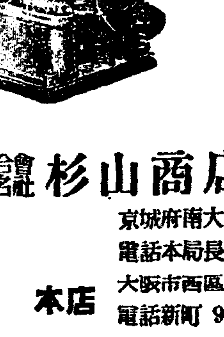
◇봄비는 부실、부실、얼어든 내다 풀리고 나무 나무 움터온다。

◇自然界엔 봄이 왓건만 사람에게도 봄이 왓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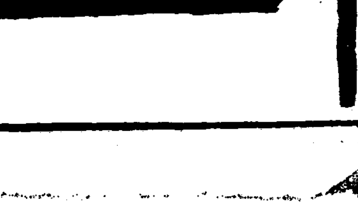
西園寺公 興津에歸還

【東京電話同盟】新內閣成立을 기다리면서 麻布의住友男別邸에 滯在中이든元老西園寺公은 十二日午前十時半東京驛發 興津의 坐漁莊에 歸還하엿다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伊佛獨米英日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型錄送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徽文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五十名◇願書提出期限三月十五日正午까지
◇試驗期日三月十六日、十七兩日間、詳細來問 (京城府苑洞二〇六)

第二期男女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改正學則要二錢)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2)〇八六七番 (振替京城一〇五六)

京城女子醫學講習所 生徒募集
願書提出期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期四月一、二日
京城貫鐵洞一四〇 (電光二八一二番)

財團法人 協成實業學校商工科生徒募集
▲商五十名、工二十名 ▲出願三月二十九日迄 ▲試驗三月三十、三十一日 ▲京城府樂園洞一八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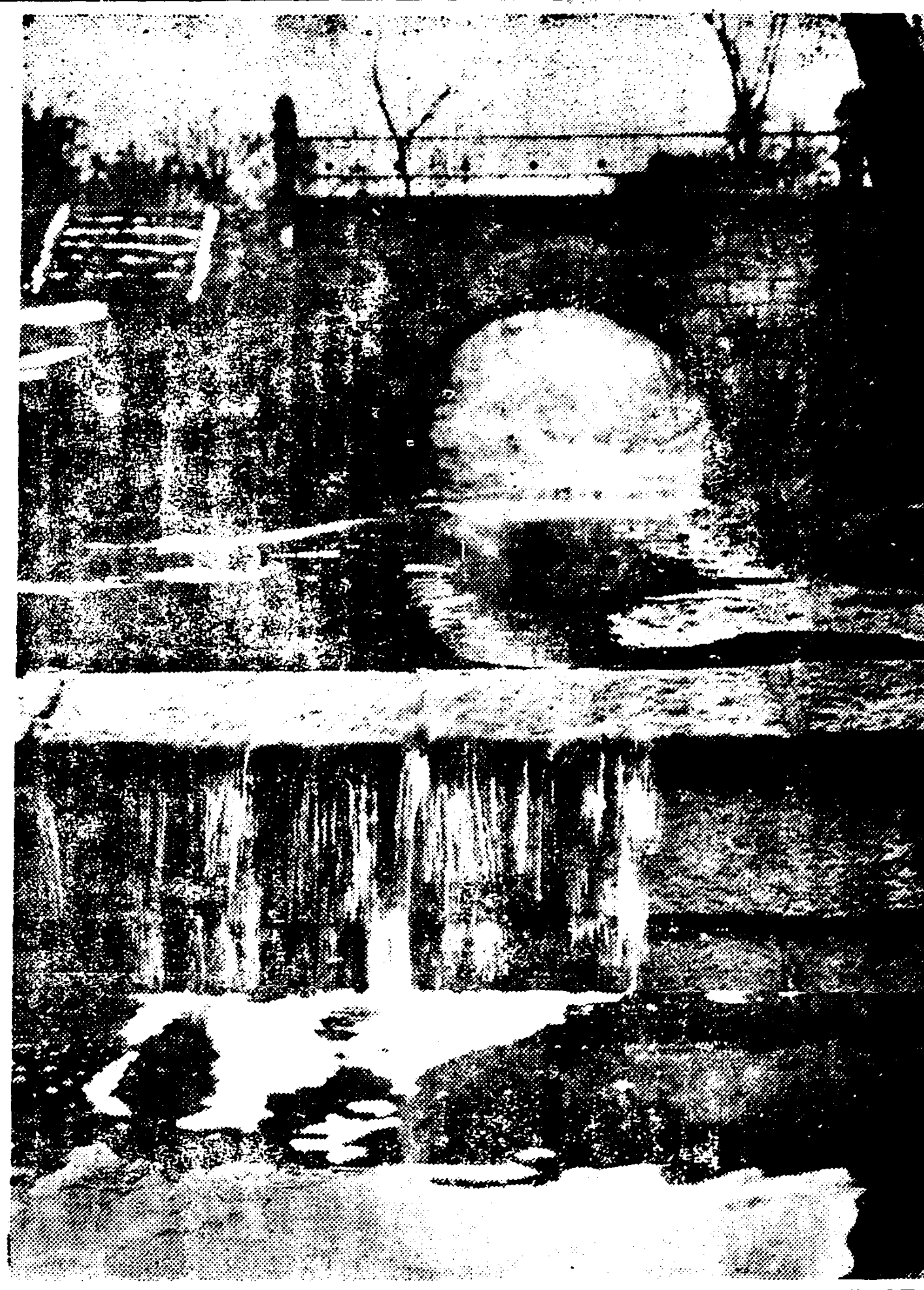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責任敎授。就職紹介
(元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 校長 溝見良
京城府武橋町三二一・電本(2)五四〇二・振京一〇六五九

信聖學校生徒募集 (平北宣川邑)
▲第一學年 約五十名 ▲出願三月廿一日까지 ▲試驗三月廿四、五日

帝國高等音樂學院
音樂科 豫科五〇名 本科十名
樂劇科 豫科五〇名 本科二〇名 普通科五〇名
入學資格中等學校、小學校(普通科에限)卒業의男女
試驗期日四月六日 詳細는郵券同封問議할事
所在 東京市世田谷區代田二丁目 (電話松澤二一九六番)

社員募集
今般事務所新設과同時에左項으로採用코저하오니 履歷書付送又要來談
一、中等程度二十五歲以上五十歲까지。一、初任俸四十圓以上外旅費支給함
一、駐在地、府內數名、培花、高山間二名、福溪、鐵原間三名、通川、庫底、杆城間三名、江陵二名
右各地에代理店을設置코저하오니希望者는至急申込을乞함
昭和十一年一月初日本各樞要地에視察次招待 一、締切昭和十一年四月末日限
元山府本町四丁目 片倉生命保險元山支所 (電話三八番)

齒痛에 今治水
무어니무어니해도 齒痛의代表藥



〈〉……어름풀린 봄 련못 (오늘 장충단에서)

"彼岸火"로 못보아 祖孫이 同時燒死

孫女옷자락 불을 끌라다가

昨日彌生町에 慘事

아츰밥을 지으려고 아궁지에 솔ㅅ가지를 집히든 소녀가 잘못해서 불이 치마ㅅ자락에 당기여 엇절줄을 모르자 이광경을 목도한 그의할머니가 황망하게 달려드러 불을 끄려하다가 것잡을수업는 불ㅅ길은 다시 그로파의 옷에까지 당기여 조손이 모다 끔직스러운 화상을 밧고죽은 참사가 잇다.

십이일 아츰 여덟시 반쯤해서 시내 미생정(彌生町)십사번지의 이호 김일수(金日壽)의딸 경순(八)이란소녀가 아츰밥을지으려고 부엌에 나가서 아궁지에 솔ㅅ가지를 집히고 불을때이려할때 그로하야 불ㅅ길이 치마자락에당기매 철업는 경순소녀는 겁결에 어쩔줄을 모르고 펄펄날뛰면서 울기만하는동안 것잡을수업는 불ㅅ길은 벌서 그소녀의 전신을 휩싸고 말엇다. 그래서 이에 놀라 뛰여나간 그소녀의 할머니 최기선(崔耆善)(八一)이가 불을 끄려고 덤벼들다가 맹렬한 불ㅅ길은 다시최씨의 치마ㅅ자락으로 옴겨부터 삽시간에 조손 두사람은 몸에 끔찍끔찍한 화상을 입은채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엇다

그러나 이처참한 광경을 때늣게 발견한 김일수의 누이동생 언례(言禮)(二七)가 이웃사람의 응원을 비러가지고 급히서둘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은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으로 떠메여다가 급히 구호를 햇스나 원악 전신이 빰아케 다 바린 까닭에 최기선은 그날오후한시에 그리고 경순소녀는오후네시에 각각 비참한 최후를마치고 말엇다한다.

이참보를 바든 소관룡산서에서는성기(星崎)사법주임이 현장에 달려가서 검시를하엿는데 일체는 김일수에게 인도햇는데 이런참변을보지안토록 일반 가정에서는 특히 조심하는것이 조흘려라한다。

少女四名이 作黨 八處에 放火玩賞

永登浦放火犯少女取調로

放火履歷도 綻露

자난십일일오후여섯시경 부외영등포리(永登浦里)륙백이번지 일하암길(日下岩吉)의 창고에서 불이난것을 비롯하야 약이십여일 동안에 원인모를 불이여덟곳이나 연겁퍼 이러나서주민들은 자못 밤잠을 편히못자고전전긍긍하든 바 경찰의 맹렬한 수색에의하야 의외에도 겨우십오세밧게안되는소녀인 시흥군북면 신길리(北面新吉里) 순이(順伊)라고 부르는 리순영(李順榮)이가 불구경을 하기위하야 일부러 불을논것이 판명되엿다함은 당시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그서에서계속하야 취조한결과 그는강원도 김화군김화읍암정리 (金化郡金化邑岩井里)에살때에도 그동리김병순(金炳順)(一五)장삼봉 (張三鳳)(一五)장인봉(張仁鳳)(一三)등 세소녀과 함께 소화팔년 사월십일일에 그앞성리 항원길(咸元吉)의초가집에 불을노와 약오십원의 손해를 내게한것을 비롯하야 리상묵(李象默)의 집의 여덟곳에 연거퍼 불을 노앗든 죄가 탄로되야 취조하는경관을놀래게하엿는데 그 소녀들이 이가튼 끔직한범죄를 하게된동기는 소화팔년사월초순에 전긔 김화읍 통양리(通陽里)어떤집에서불이 난것을 구경한것이시초로불이 맹렬히 타 올르는데 소방대원들과 경관및 동민들이 모혀서 불끄는모양이 어찌나자미가나든지 그들은 서로의론하고 석양과나무를가지고 남의집 처마끗헤 불을 노키시작한것이 버릇이되야 그후 그곳에서 여덟곳에나 불을노앗다고한다 작년시월경 리순영은 자긔부모를 따라 영등포로 이사를 왓스나 역시 그는불놋는자미를 잇지못하고 전긔한바와가리 그이웃집에 불을질러 약한달동안 영등포주민들의 가슴을 서늘케한것이라고한다

平壤地方喜雨

【平壤支局特電】십이일아츰부터 평양부근에 오기시작한 일천천금의 단비는 십삼일 아츰까지 한평에 약두말서되 가량이나와서 물끄근이업게 할뿐더러 보리의 발육을 조케할터임으로농가에서는 여간깁버하는바가아니다

下水改修九千米

今年中十八萬二千圓豫算으로

市內廿七個所實施

경성시내의 위생교통의 두방면을 걸처서 시가의 미화상으로 변래의문제이든 행랑뒤골목의 하수구의 개수를 금년에 이십칠개소에 총연장 구천이백십구미돌을 십팔만이천원으로 완성케 되엿는데 그지역과 연장은다음과갓다

1 黃金町四丁目 櫻井町一丁目二丁目附近 四五〇米
2 本町三丁目 大和町一丁目附近 一九〇米
3 初音町一二六 光熙町一丁目附近 六六〇米
4 御成町一六一、七六附近 二一〇米
5 公平洞八七、三附近 二七〇米
6 安國洞六一、一四八附近 二五〇米
7 鳳翼洞八三—一七〇—一三四—一一五—九附近 四一〇米
8 仁義洞一 鍾路五丁目二二〇附近 四一〇米
9 蓮建洞六八 昭格洞一五〇附近 四二〇米
10 昌成洞一 一六二ノ一附近 一五〇米
11 內資洞一三七 社稷洞一四〇附近 四五〇米
12 太平通一丁目六三 貞洞八ノ地先附近 一八〇米
13 太平通二七六 二丁目三三五附近 二六〇米
14 橋北洞二 紀把洞三六附近 二三〇米
15 黃金町三丁目二九一 三二〇 若草町一〇四附近 一九〇米
16 青葉町一丁目一九三 三丁目二附近 二九〇米
17 元町一丁目九三 一二ノ二附近 三三〇米
18 元町二丁目二三 一二附近 二〇四米
19 元町一丁目二八ノ二 二〇附近 二二〇米
20 元町二丁目八三 大島町二八ノ二六 附近 二五八米
21 嘉會洞一五〇 花洞一三六附近 三八二米
22 大和町二丁目二一 本町四丁目一二〇附近 三一六米
23 薰井洞一一八 八八附近 一三〇 三〇〇米
24 鍾路五丁目三六ノ一 孝悌洞一〇八附近 三〇〇米
25 崇二洞一八八 一三一附近 二九〇米
26 樂園洞一七五 六二ノ二附近 二八〇米
27 和泉町地內全部 一、〇一六米

數物科二十名 商科百廿名

延專學生增募認可

날로발전의 한길을밟고잇는 시외연희전문학교에서는 해마다격화되여가는 전문학교입학난을다소간이라도 완화하고저 오래동안교섭을 해오든중 얼마전에상과(商科)와수물과의 수용학생정원의 증원신청을총독부에 제출하엿든바 본월구일부로 인가가나게되여 래사월신학기부터 시행하게되엿다고한다 정원증원된각과는 종래상과(商科)일이삼학년 각오십명 한계백오십명을 각학년구십명씩으로 늘려 한계이백칠십명으로 늘리게되고 수물과(數物科)의 종래일이삼사학년 이십오명식 한계백명을 각학년삼십오명식으로 늘리게되엿다고한다

延專同門會

시외연희전문학교제십삼회 동문회 정기총회급신입회원 환영회는 십사일오후륙시 시내태서관(太西館)에서 개회할터인데 장소는 본래예정의명월관을 변경한것으로 일반회원의 다수참석을바란다고한다

世界올림픽 體操規定

【伯林發同盟郵信】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體操競技는 八月十日부터 十二日에 亘한三日間 『데이트리히·엑칼트』野外劇場에서擧行할터인데 競技種目은 鐵棒、平行棒、跳馬、木馬、吊環、徒手에依한 規定運動十二種으로 團體及個人(各種目及全種目)에 나누어잇다 그리고『데몬스트레숀』에는 男子十六名以上의 團體에依하야 四十四分間 公開演技가許諾되여잇는바 그規定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男子及女子』十種目(內十種目은 鐵棒、平行棒、跳馬、木馬、吊環、徒手의 規定運動、二種目은 選拔運動)
一、團體競技 二、個人競技

▲出場人員‖各國八名이 모다 競技에 參加할수잇스며 團體競技는 各種目上位成績者 六名의 合計得點에 依하야 決定하고 個人競技는 團體競技에 參加한 選手의 個人得點으로서 其種目의 選手權을 決定함 全種目의 得點合計에 依하야 全種目의 等級을決定함

公開演技는 男女各國最少十六名의 團體로하되 그公開는 四十五分間을 經過함을 不得함

▲競技規則‖國際體操聯盟制定의 것으로 解釋에 疑問이잇슬時에는 佛語의것을絶對的으로함

▲統制團體‖國際體操聯盟과 獨逸體操聯盟

▲競技日程‖第一日(八月十日)午前及午後 六種目規定運動及木馬에依한 一種目의 選擇運動

第二日(十一日)午前、前日成績五位以下된者에依한 跳躍選擇運動 午後、前日成績四位以上된者에依한 跳躍選擇運動

第三日(十二日)男女『데몬스트레숀』參加申込確定한 時間表는 請接受後에發表함

市內各專門校卒業式

▲延禧專門學校 三月十四日午後二時
▲高等商業學校 三月十三日零時三十分
▲法學專門學校 三月十四日午前十時
▲藥學專門學校 三月十七日午前十時
▲高等工業學校 三月十九日午前十一時
▲普成專門學校 三月十九日午後二時
▲醫學專門學校 三月二十日午後二時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三月二十四日午後二時半
▲梨花專門學校 三月二十日午前十時
▲中央佛敎專門學校 三月十六日午前十時半
▲京城保育學校 三月十四日午後七時半
▲中央保育學校 三月二十日午後七時半

警官密輸事件

取調는 一段落

현직경관인 신의주 서원(新義州署員)강병섭(姜炳燮)에 관한 밀수출사건은 그후도 본정서에서취조를 계속하는중으로 그의아우되는 강계읍(江界邑)강병순(姜炳淳)과 공모하야 지난이월초순부터 오륙회에 약륙천원의 금괴를 밀수출하엿던것인데 사건은 그다지확대되지는 안흘모양이라한다

"朝鮮文壇"幹部等 恐喝疑嫌로 送局

女流雜誌關係者醜聞을中心

金品强要한嫌疑로

십이일 시내종로서(鍾路署)고등계에서는 시내가회동(嘉會洞)에잇는 문화잡지 조선문단(朝鮮文壇)의 리성인(李成仁)(三)(以下全部假名)과 리호학(李虎鶴)(三四)김영춘(金英春)(三)등 세명을 협박죄(脅迫罪)의혐의로 두명은 신체구속으로 김영춘은 불구속으로 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엇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드러보면 얼마전에종로서 고등계에 어떤녀류잡지의창간을 준비하고잇는 문세순(文世順)(二四)이라는녀자가 전긔조선문단 관계자세명을걸어 협박과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제출하여왓는데 그고소장에의하면 그들세명이 그녀자를 차저와서 그녀자와 협력하야 녀류잡지를창간하려는 윤모(尹某)등 다숫문사와 그녀자의사이에 남녀관계가잇는것을 안다고하며 그사실을자긔들잡지에 실어서 세상에폭로식히겟다고 협박하야 은연히금전을 요구한것이라고한다 그서에서는 관계자를 모다검속하여다가노코 소상히조사한결과 그들세명의 죄상이명백하다고보아 드듸여 그와가티송국하게되엿다이라한다

爭議의爆發的增加

小作階級權益主張證左

來二十日改正調停令實施따라

爭議는漸減할情勢

소작관계의 법령이 발포된이래 그동안 숨어잇든 지주대 소작인관계의 모든분규는 표면화하며 쟁의는 년년히 증가하엿다 측 총독부 농림국 조사에 의하면 소작관계의 법령이 전연업섯든 소화칠년에는 일천이백건이든것이 소작조정령(小作調停令)이발포실시된 소화팔년에는 일천구백칠십오건으로 증가하엿고 다시농지령(農地令)의 발포실시를 본 소화팔년에는 일만구천오백사십사건으로 되엿는데 작소화십년의통계는 아직 모이지안어서 그수를 알수업스나 일만건을돌파할것은 물론 적어도 일만수천이라는 수에달할모양이다 이러케쟁의가 폭발적으로 다수에 달한것을 가르처일부에서는 불비한소작관계의 법령화하든동조이 일시에 현아화해진것가리말하는편도 잇스나 사실에 잇서서는 그런것이 안이고, 법령이 소작인계급을 위하여서는 아직불비한점이 만키는하되 그것만으로도 소작인들이 법의힘을 의지하여 권리를 주창케된것으로 볼수잇서 소작관계는 법적(法的)으로 일부개선되고·잇다고 볼수잇다 그리유로는 전긔법령에의한 쟁의내용을보면 대개가 지주의무리작권이동에대한 소작인의 호소로인한것입으로보아 소작계급이 법령을 활용하야 자긔의권익옹호에 힘쓰는관계임을 알수잇다 그러나 종래의 법령에는불비한점이 만허서 그것을 좀더 강화키우하야 발포한 개정소작조정령은 오는삼월 이십일부터 실시를보게 될터인데 농림당국에서는 개정령실시후에는 지주측에서 전가리 법률악용하는탈법행위를 용이히하지못하게된 관계로 쟁의건수도 점차감소되리라고 보고잇다、그러나 농촌에서는 법령은잘리해치 못함으로 한번은쟁의를 법에 호소하야 권리의무관계를 따지게된후에야 법령을리해하고 무리한 분규를 아르키지 안흘모양으로 지금까지의 쟁의가 대개남조선이어든관계로보아 금후는 남조선에는 적어지고 서조선방면에 쟁의수가 늘어가지안흘까 십다고한다

三陟炭鑛認可

벌서부터 출원중에잇든 삼척(三陟)철도의 부설은 지난 이른날짜로 드되여 그인가를 보게되엿다。

이철도는 강원도삼척군소달면도계리(三陟郡所達面道溪里)로부터 그 고을삼척면정라항(三陟面汀羅港)에 이르는·연장 삼십오키로로 완성후에는 동력증기를 사용하고 궤도넓이는일척미돌사백삼십오가 될터인데 이 건설에 요할 총경비는 오백팔십팔만원이라한다

이 철도가 부설될 지점일대는 매장량이 무진장이라고하는 소위 삼척탄전(三陟炭田)이 잇는곳으로 이 철도의 부설목적은 무엇보담도 그 탄전에서 나는 무연탄반출에잇는 동시 개통되는날에는 산업개발에 큰 도움이 되리라한다。

그리고 이 철도가 개통되지 삼년째부터는 무연탄반출량만 매년 오십만톤에 달하리라고 보고잇다

大本教에 大鐵槌

千二百本支部解散後

建物等도 破却을 命令

【京都電話同盟】요교(妖敎)대본교주(大本敎主)출구왕인삼랑(出口王仁三郎)(六六)수노부 팔명을기소처분한 경찰당국은 다시남어지 오십륙명도 기소를단행할터로이와병행하야 황해도대본교와 그별동대인 소화신성회(昭和神聖會)소화 신생회(神生會)소화청년회 인류애선회(人類愛善會)에대하야도 단호히해산명령이 발표되여 이로부터는 비합법결사로 단정하야 사법처분을 밧게되엿다 적용법률조항은치안경찰법제팔조『안녕질서를 보전할 필요가잇슬때는 경찰관은……운운또는 관공용제한、금지혹은 해산하고……』라는 명문에준거한것으로 이명령서는 경도중경형무소(京都中京刑務所)에 기소수용중의 왕인삼랑에게 전하기로되여 대본교는 흔적을 감추게 되엿다 이와동시에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미로서 최후의 대철퇴를 내려 전국 일천이백개를헤이는 대본별원(別院)·분원(分院)지부등을 통재로 파각(破却)명령을 발하야 동명령서는 왕인삼랑에게 수교(手交)되엿다그리하야 한곳 호장화려(豪莊華麗)하든 구강천은향(龜岡天恩鄕)의 릉부본부(綾部本部)등에대하야는 행정집행법 제오조제일항의 적용을보게되고 명령일하에 요운(妖雲)이 가득하든 사교(邪敎)인 대본교의 본거는 당장에 괴멸(潰滅)의 운명에빠지고 말엇다 그중에도 이미자발적으로 해산된것도 잇스나건물의 파각(破却)은 개인소유로인것은제장(葬場)만을파기(破棄)하기로되여잇스며 그대부분이 왕인삼랑 개인명의(名義)로 되여잇기때문에지금 당국에서 그대로잇을연구중이나 아마도불수는 면하고중(證)주일(直日)팔중야(八重野)등의처와 딸들에게 보관명령이 나릴것으로보인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平壤 高級煙草專門 廣林商會

中等校合格者

梨花女高 (合百二名)

申成浩 金基淑 金善玉 朴明姬
朴貴姬 尹英德 張明彝 金寅順
金在吉 張福順 李正愛 金善鍊
金鳳愛 李鳳姬 洪聖彩 李蓮姬
池終順 權彝鴻 安瑛植 李貞周
李姬鎬 林玉鎭 李順子 金貞愛
李姈姬 李姈然 金德蘭 文允淑
金德禮 金鎭姬 楊仁淑 玄良順
金明玉 嚴庭蓉 羅明順 洪義植
吉仁順 石蓉子 李允子 金貞信
趙炳男 朴貞玉 申和均 徐廷鳳
孫完姬 金永玉 崔貞玉 申辛姬
鄭玉輝 李淑子 曹榮 鄭信愛
延聖淑 權聖淑 洪貞憙 禹順錫
崔圭娥 金千龍 李順禧 吳信淑
尹貞禮 鄭金伊 姜南熙 韓壬洙
吳寶淑 金淑子 金傑月 朴永寶
池正愛 閔淑正 趙玉連 高順子
金容攸 金順嬉 尹蓮花 韓相熙
盧孝姐 李延周 閔贊基 孟貞吉
李貞姬 李玉術 趙淑烈 吳連娘
李東媛 金思順 南宮瑛子 陳林燮
洪仁在 崔琬圭 吳龍妣 韓鍾宜
田貞吉 韓大玉 金奇貞 蔣仁淑
張明賀 柳千蘭 金明淑 金敬愛
許庚玉

京城女商 (百五名)

朴龍珠 金貴點 具滋信 梁在學
許道禮 馬慶秀 李暎姬 崔蓮熙
蔡英福 金玉禮 李青子 成喜順
玄仁淑 閔貞基 黃庚淑 李承織
咸聖愛 崔在院 林基淑 李明信
李允全 黃鳳淵 李庸一 金慶錫
李康惠 金恩榮 鄭小華 崔明淳
丁淑子 張敬熙 林癸煥 全癸淳
崔中戊 李秋月 金永泰 李錫富
李鎭郞 林順德 郭順錫 李鋼任
李京順 張英子 李福善 金圭善
李範殷 崔貞愛 全鳳鎭 金美蓉
柳志姬 李箭子 金炳嬉 李良善
白玉培 李星子 朴英順 李蓮順
成淑烈 金小順 金德淑 白銀淑
張明愛 李令愛 金惠卿 韓相烈
張仁慈 金正直 朱靜淑 尹玉淑
劉明淑 李春子 宋閏姬 吳達安
李吉洙 咸榮淑 尹相禮 李聖姬
尹秀一 李明順 張錫姬 朴鍾肅
金甲洙 金松子 柳斗鉉 朴容淑
金玉秀 金貞子 李基玉 李春鳳
金潤男 尹華順 張福守 李元姬
金成淳 李明淑 申淳姬 文芬蘭
全鍾華 金鍾琬 安金卿 金庚培
康鳳玉 權順任 兪惠卿 朴三成
金貂順

貞信女校卒業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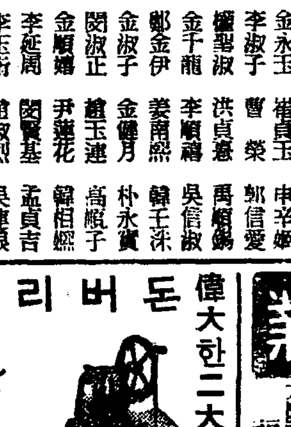
부내 정신(貞信)녀학교에서는 십삼일오후두시반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제이십팔회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모다 스물하명이라고한다

天氣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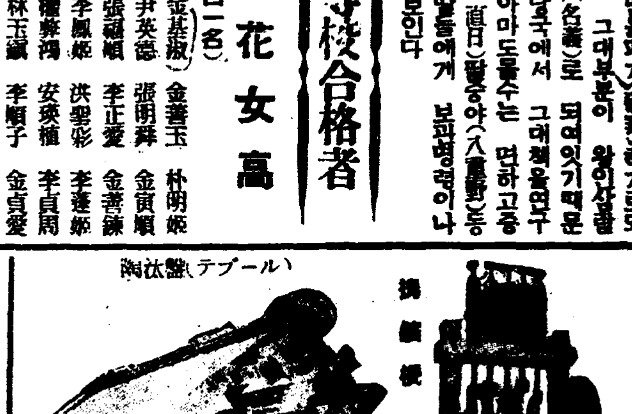
京城地方今夕은 흐리고 明日은 개이나一時흐리다 京城地區도갓다

昨日 最高 六度二 最低 零度
今朝 最低 一度九
今日正午

各地雨量(午前六時現在)
▲淸州七미리▲釜山六〇미리▲木浦四미리▲仁川一五미리▲京城二五미리▲江陵一五미리▲平壤一五미리▲元山一五미리▲新義州一五미리▲城津一五미리▲雄基九미리


돈버리 偉大한二大工業依賴맘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意義잇는大事業擢進
第一 第二
大阪港區市岡四市場通 電話西八一五二
內外貿易株式會社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テプール盤(淘汰盤)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町289
電話本局 863

流行歌 이한장으로
逸才全壽麟의面目躍如
全壽麟傑作集
金福姬
빅타
四九四〇〇

施設整備 待遇親切
和盛旅館
京城府貫鐵洞二三 電光二四七三番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 四月七日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中學校高等普通學校商業學校實力養成科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電本五三一〇番)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十七回 生徒募集 ◇夜間新學期開始 四月十六日
校舍大擴張敷地六百餘坪及運動場千五百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 (電本五三一〇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一五九

向上女子實業學校 生徒募集
募集人員 五十名 締切 三月二十九日限 試驗科目 國語、算術、面接
試驗期日 三十日、三十一日 詳細京城天然洞三一本校로問議

音樂研究所學生募集
期限 三月廿六日까지 (照會者要貳錢切手)
臨時申込事務所 本町一ノ五一(平田旅館裏道) 코리아洋行
教授所 內資洞八 코리아音樂研究所

優待急招聘
各道駐在監督所長急募集但限經驗者外高級駐在社員數十名採用各
確實保證要二名右希望者履歷書送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二
昭和生命京城支部

자녀가업스신분께
조혈정 이라는물약은재래에쓰든환약이나 먹는약이 아님으로복용하기쉬운약이오니부인병로자녀를못나신분자궁병으로월경불순。복통。백대하。적대하。냉병으로고생하시는분쓰요약가는삼주일분에사원이오지방송료오십전
光化門局三三七番 振替京城二二六四二
京城鍾路 日光製藥社

工業은
人生의幸福이오니有意諸氏는二錢切手添送하시면◆洗濯石鹼製法◆增酒法◆鍍金法◆化粧品製法에關한規定書無料送呈함
京城府長沙洞一一九
泰昌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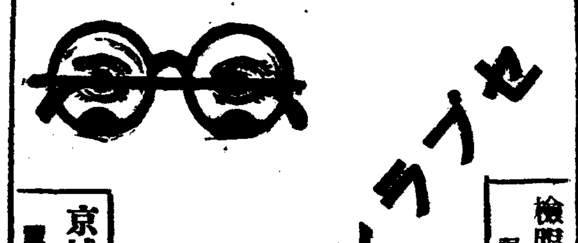
太平洋攻防戰
米國海軍省後援全聯合艦隊陸海軍航空隊應援總出動
로이드베이콘氏監督作品
主演 젬스캭크니ー、맛트오푸라이엔、마가렛트린제이
三萬三千噸에巨艦갈포니아를先頭에怒波를차고나가는艦艇百數十隻千餘의飛行機는飛標의人上亂鬪蜿蜒十數裡에칠듯이一大煙幕中을보아라果敢한敵前上陸인太平洋沿岸
◇와나부라사수社特作映畵
大喜劇 부라운拳鬪處의卷
監督 로이델류ー스氏 主演 죠지부라운氏
언제든지웃는이외의또다시질거움이잇슬가青春時代가가장아름다움이잇는로멘스꿋까지요절복통할一喜劇
◇極東映畵社超特作時代劇
風雲天馬城
監督 下村健二氏 主演 市川壽三郞氏
實寫 海軍의威力 全卷
麻浦桃花洞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三月十三日부터特別大封切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新春三大特選映畵大會
◇와나나쇼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렙풀아기신년세배 (카리룸)
렙풀아기신년세배(카리룸)렙풀이와습니다、귀여운렙풀이춤과노래로써여러분들의세계로되시여가겟다고、렙풀아기가그다립니다
◇佛蘭西폭스超大作映畵
리리옴
名優 샤루트、뽀아이에登場
이푸리츠랑監督作品
燦然이光芒을던지는뽀아이에의魅力!모르나르不朽의名著映畵化로藝術의香氣도馥郁한神品!
◇日活超特作映畵
うら街の交響樂
杉狂兒、小杉勇、川文子主演
東日大阪每日賞一等으로入選된名作(次週十九日封切)三銃士、로ー맨스의거리、카리오카多情佛心
全鮮第一 映畵殿堂 電光四五五
團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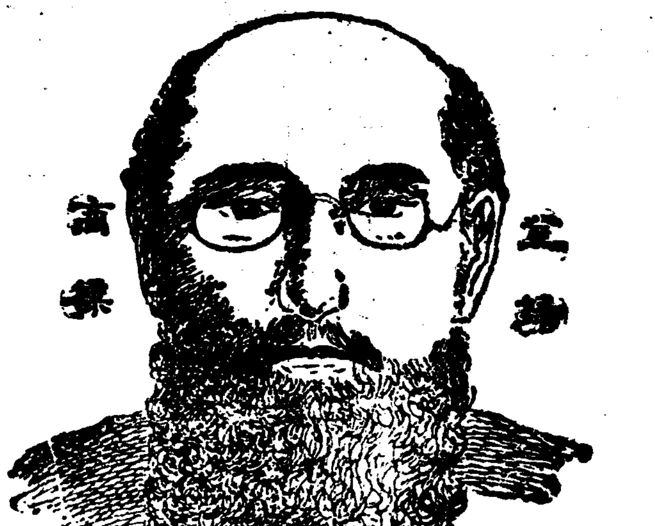
三月十四日封切
毎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半)
特別大興行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人氣第一 사리ー템풀主演

各科專門醫分擔
輕費診療
▼開院一週年紀念擴張▲
ー赤外線光線治療科設備ー
內科、小兒科
外科、花柳病科
眼耳鼻咽喉科
大衆醫院
院長 金重呂
科長 閔瓚鎬
眼耳鼻咽喉科增設
貫鐵洞一三五(우미관골목) 電(光)五二四〇(오이사)


檢眼無料 限學生
◎急告
京城驛前
電(本)五一一二

엇재서 大學目藥이 世界에 第一 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말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 專賣特許인 「올비오레긴」이 配合되야잇습니다。이것은 世界의어느目藥으로도 追隨치못할것입니다。

第二 그런結果大學目藥은 모든眼疾에神效잇는治療作用과 눈을깨끗이하고아름답게하는 美眼作用과 눈에有害한 紫外光線을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 三作用을一時에나타내는것입니다。한가지藥으로 三作用을兼하야, 眼科藥으로서 理想을實現한 目藥은, 모든目藥中에서도, 우리大學目藥이 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 大學目藥은, 압흐거나, 쓰리지안코, 氣分조케有効한것이 자랑할만한 特長입니다。

「氣分조코愉快하게眼疾을治療한다」는것이 他藥의 追隨不能하는 大學目藥의 特長인同時에, 藥質은아모리오래두어도變質되거나 腐敗치안어서, 어느때나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 大學目藥의 世界的으로 信用을엇는 理由입니다。

第四 다시, 大學目藥에는一瓶마다, 大學洗眼藥이라는, 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습니다。眼疾을速治하랴면, 눈을씻고 目藥을넛는것이조흔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인대 目藥에洗眼藥까지 添付된 親切한目藥은大學目藥外에 는업습니다。그뿐아니라, 大學洗眼藥은 世界一인산데—뿌衛生包裝을하야 가장淸潔히包裝되야잇슴으로, 누구나 大學目藥의 周到한데는 賞歎치안는이가업슴니다。

第五 大學目藥에는, 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 特製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슴니다。學理와 經驗에依하야, 어린이눈에맛도록製劑한 小兒用大學目藥이 世上父母된이들에게 絕大한信用을 밧는것도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 點眼容器와 人造鼈甲케ㅣ스에對하야 한마듸말슴하겟슴니다 大學目藥의 容器는 新案特許의 自働點眼容器입니다 이容器는, 그대로 自働式의點眼器로서 便利한것으로, 上部의고무를손으로 누르면 一滴도 허실되지안음으로 第一經濟的이며 衛生的입니다。이點眼容器는, 너머지거나, 것구드러도目藥이 쏘다질 念慮가업슴으로, 携帶하기에데 便利한다가 더一層携帶하기便利하도록 近代的 美裝을다하야, 發明한것이, 人造鼈甲케ㅣ스입니다。

人造鼈甲케ㅣ스는, 조금도 틀이지안는, 美術工藝의 粹을다한優美高尙하고 便利한케ㅣ스로는勿論, 다른케ㅣ스로서도아직다시업는 훌륭한것이라고 評判조슴니다 願컨대, 여러분도每日아츰起寢하시거든 잇지마시고, 大學目藥을點眼하십시요, 그리고 外出하실때에도, 반드시포ㅣ케트에 넛코단이시다가, 생각나시는대로 點眼하십시요。

여러분눈 은어느때나 아름답고 永久하게 健康하실것입니다。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 健康케되고●眼疾은 곳治療됨●大學目藥은 片時不離할나의寶貝입니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醫學博士 山中 崔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達氏
推奬

大學目藥은 效力第一로 世界에 所聞난 눈藥의 大王이요 그 效能의 優秀함은 有名한 眼科專門의 五大醫學博士가 一齊히 推奬한것만 보와도 分明한데다가 世上사람들이 『第一 조흔 눈藥이다』라고 爭先愛用하야 大學目藥이 世界 目藥中에서 第一信用이 잇고 第一 잘 팔리는것으로 보아 알수 잇슴니다 이러케 훌륭한 目藥이 日本에서 製造 發賣되는것은 我國醫學界의 世界的 名譽라고 하겟슴니다

適應症

○血目 ○雪目 ○흘림안질 ○부시는눈
○疲勞眼 ○打目 ○爛目 ○[illegible]目
○다락기 ○상한눈 ○淚眼 ○호린눈
○麥粒腫 ○삼눈 ○도라홈 ○光線眼炎
○結膜炎 ○진안질

人造鼈甲케ㅣ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ㅣ스는一個)	五十錢
補充用 特大瓶付(圓)	一圓

케ㅣ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製造本舖 參天堂株式會社 大阪東區北濱一丁目

家庭

이상한 봄과후는 정지ㅅ간의 비상시

음식찌꺼지를 써혀서는낭패 특별한 설비가필요

요지음가티 해ㅅ밧이 반짝 들어서 따듯한 봄긔운을 피우다가 눈이랑 비랑 다시 퍼부어서는 부억안의 살림살이도 비상한 주의를 해두지안 하서 안됩니다. 반찬찌꺼지 밥찌꺼지 나부랭이가 얼엇다 녹앗다 섞어 버린다면 위생상으로나 볼품으로나 크나 큰 문제가 아니오리까? 본래 어느때든지 부억안을 한번 둘러 보아서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짐작한다고까지 이르는터로 부억안만큼은 어대까지 깨끗하고 정결스러워야 합니다. 끼니뒤의 설거지가 귀찬키 그이상이 업는것은 부인네 아니고는짐작도 못 하올 바오나 그러타고 해서 추하고 더럽게맨들어 노흘수야 잇겟슴니까?

첫재로는 문밧게 큰 쓰레기통을 노하두고 일일히 그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리랴고 하는것이 잘못입니다 들랑날랑하자니 시간도 낭비요 정히 괴롭게 섣가신때는 고만 내다버릴 용긔를 일허서 우억안 아모데나 쑤어 싸케 되니 쓰레기통을 작만한 보람도 업습니다. 그러니까 문밧게 큰 쓰레기통은 그대로 두고 부억안에는 따로 조그만 쓰레기통을 맨들어 놋는것이 어떠켓습니까? 그래서 위선 조그마한 쓰레기 통에 모핫다가 한목에큰 쓰레기통으로 갓다 붓는것이 어떠켓습니까? 둘째로는 부억안에 쓰레기통을 따로 맨들때에는 음식찌꺼지와 보통 쓰레기를 한데모흘것이 아닙니다. 음식찌꺼지란 물긔도 잇고 또 기름끼도 잇는것이라 보통말은 쓰레기와한데 뒤범벅을 시키어서는 더 럽기도 더 더럽고 썩기도 더 잘썩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쓰레기통을 이왕률쫌 맨들어서 그두가지를 따로 버리는것이 어떠켓습니까? 또 음식찌꺼지를 보통 쓰레기와 가려서 따로 버릴때도 울찌를 밧솨 짜서 버리는 것이 어떠켓습니까? 그런데 보통 쓰레기를 버리는 그릇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나 음식찌꺼지를 버리는그릇은 좀 잘맨들어 두어야 합니다. 거긔도 여러가지의 방식이 잇는데 위선 그중의 멧가지만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一) 바께쓰나 통가튼 것을 밤아래 노하두고 버리는 방식이 제일만히 류행하고 잇스나 아모래도건데이가 남아서 수채로 흐리기 쉽고 또 바께쓰로 내버리다가 밧그로 떨어저 지저분하게 됩니다.

(二) 설거지간을 나무나 세멘트로 맨들어 놋는동시 그벽에다기 한편을 뚜르고쓰레기통을 맨들어 놋는것이 제일 완전하니 그비용은한 십원내외나 된답니다.

(三) 압서와 가티 설거지를 맨들어 노코 물을 흘려 내보내는 통과함께 건데이를 흘려내보내는 통을 하나 더 맨들어 놋는것도간단한 방법이니 그비용은오륙원에 지나지 안습니다.

(四) 위로 나사줄을 매고 바께스나 다른통을 달아 이리 잡아 다리고 저리 잡아다리어 가면서 껀데이를주서 담앗다가 가득 차거든 떼서 쏫는 것도 해롭지 안한 방식이오나 만일 나사가 병이 날때는 작구 아래로 흘려 나려 오게되야서 우리는 일하는데 방해가 되기 쉬운터로 반드시 조타고 말할수 업습니다.

彼女들에게듯는 常識試驗

력사상의재사는 "네 돈판애요"

—오스트리아녀학생의답안—

오스트리아라는나라, 어느녀학교에서 학생들의 상식정도가 얼마나한가를알기위하야 시험을 보이엇는바 그답안에는 실로재미잇는 이야기꺼리가 만핫습니다

문제 『지나간변동안 화학상으로 가장큰 발명은무엇인가?』

답안 『오시볼을 머리에바르면 붉은 머리가되는것』

문제 『력사상 가장 위대한 재사의 이름을들라』

답안 『돈판』(서양전설로 유명한색마)

모던·껄의 긔질을 벌ㅅ펴센트로 나타내고잇는 이런답안에 대하야는 시험보이든 선생님들도 고만 입을 딱 버리엇답니다.

경제를무시하는 담배衛生學

—몸을위헤서는해푸게피울일—

니코틴害毒防止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중독이 무섭다고 하는데 최근 스웨덴 이란나라 씨·에이·왕그렌이라는의학박사가 연구한결과 담배를 먹으면서도 니코틴 중독을 면할수가잇다고 합니다. 즉 아래와가튼 아홉가지의 조건만을 주의해서 지킨다면 문제가업답니다.

(一)권연이나 여송연이나 될수잇는대로 가늘고 짜른것으로 피울일

(二)습긔가잇는 담배는 절대로 피우지말일

(三)물쭈리부친 권연을 피우고 또 그것이업는권연은 끼워서 피울일 그뿐더러 물쭈리는 어떤것이나 길게할일

(四)담배를 삼분의이쯤 피우고 난다음 거긔는 니코틴이 제일만히 잇스니까 내버리고 피우지말일

(五)담배는 입살에다가 물고 입속으로 너치말일

(六)한 번부치엇다가 끈 담배는 다시 피우지말일

(七)물쭈리는 물론이요 권연의도 입에닷는 부분은 깨끗이 해두고 또 간조하게 해둘일

(八)담배가 목구녕속으로 넘어가지 안토록 주의할일

(九)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방안의 공긔를 특별히주의해서 부결한공긔가채잇지안토록할일

이러케 까다롭게 하고서 담배는 피워서 무엇하느냐고 하면 할말이 업지만은 이러케해서 꼭 해가 업다면 담배피우는 전세계 수만흔 대중에게 다시업는 복음이아니랄수업습니다

우리네 가쓰는 비단옷감 멧가지나되는가 (一)

李相烈氏談

일반가정에서 비단옷감을 만히 사용하시기는하나 비단에 대한 상식을 다소나마 가지신분이 별로 안계신듯합니다 즉 박구어 말씀드린다면 우리조선에서 쓰는비단옷감이 대개 어디서 맨드러내는것이며 종류는대개 몃가지나되고 또 엇던것 실용적이요 튼튼한것인가 한번보아 알아려내는분이 퍽 적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변변치 아흐나마 제직에 종사하며 연구하는사람의 하나로서 여러분께 비단옷감에 대한참고될만한것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우리네가 전부터 사용해 나려오는 멧가지 비단은 대개모번단, 법단, 양단등인데 이외에도 수십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만 이러타고 내세울만한것은업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유행품의 비단옷감이 수업시 나와 종류도 만코 가짓수도만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네가 입음만 한것이라고 내세울만한것이업시 모두가 얼치기옷감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도 조선가정에 마침만한것으로는 먼저 말한 모번단법단양단등속 밧게업는셈입니다

모번단 법단 양단등속은 제직할때에를별히 힘들며 또한크게 기술문제가붓고, 시간도오래걸리는것입니다 공력이 이러케 드는만큼사실상 비단옷으로는 튼튼하고실용가치가잇다고 볼수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육칠년전만해도 조선안에잇는 제직공장에서는대개를 모번단, 법단, 양단등속을 짜섯는데 원체힘이드는 데다가 따라서 갑시비싼 관계로 일반이만히 사용할수 업게되엇습니다 그래서 판로가적고 수지가 맛지안허 큰곤난을겪는중에 갑싼인조견이 우루루쏘다저 나오게되어 일반제직업자들은 미처 정신도 수습할새가업시 인조견 제직에 몸들을거버렷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재래의비단은 거더치우고 인조견, 교직에 힘을쓰게되고 일반가정에서도 갑싼맛에 이것을 만히사용하게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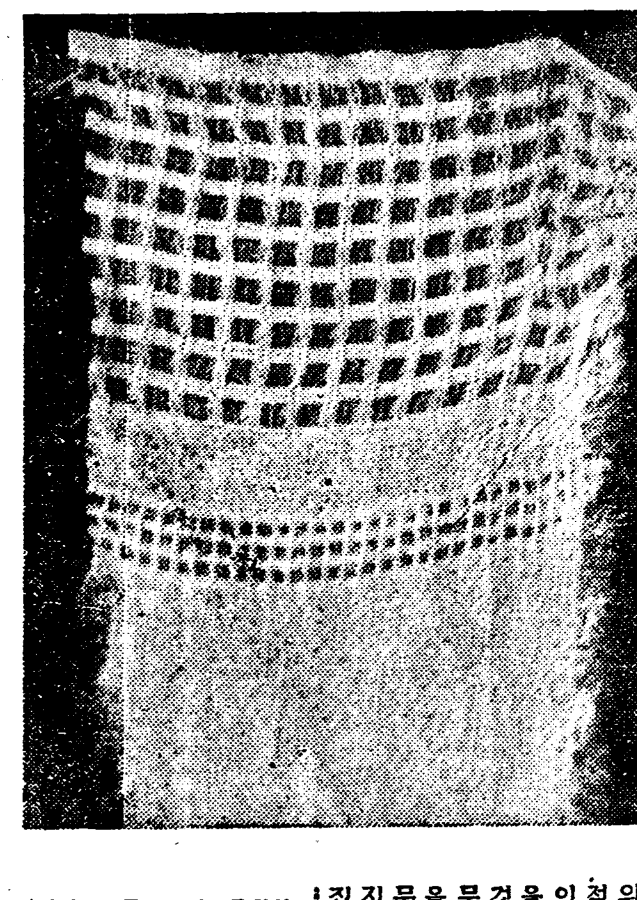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에와서는 그것도 옛날이되고 마럿습니다 즉인조견은 원체갑시싸니까 호사꺼리가 못되는데다가 질긴품이 보르지못함으로 여간기교잇게 변화잇게 짠것이아닌다음에는 아주시시하게들 여이게되엇습니다 그러고보니 옛것이 다시그리워 본견을 찻게되며 따라서 모번단, 법단, 양단이 또다시등장하게되고 또한본다에는속의 새비단까지 나타나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각 제직업자들이 모다 이 네가지 비단옷감을 근본으로하고, 거기에다 시 가공을하야 그 종류의 신품을 맨드러내기에 방붑니다.

그러고보니 갑슨 비싸나 비단옷을 입을바에는 본견을 사용하는것이 인견보다 경제가 되고 고상한 품도 된다는 인식이 일반의 머리에 백히게되세음입니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인견은 본견이 귀한 서양에서 인견대용으로 사용한것이지 동양에 잇서서는 인견을 유난스리 만히 사용하는 곳은 조선밧게 업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살림이 넉넉지안흔 탓이겟지요만 속옷은 몰라도 겉옷을 인조로 해입는다는것은 중국에도 별로 업고 일본내지에서도 볼수업는 현상입니다.

그건그러타하고 요새나오는비단을 말씀하면—

『코로쎄트』『지리멘』『이색하부다에』『벨베트 리로-도』『조세트 비로-도』『샛문벨베르그』등속입니다.

『코로쎄트』를 말씀하면 제직에잇서 공력도만히들고 가공을 만히하는관계상 퍽자미스러운것이나 자조빨면 결ㅅ단입니다. 그까닭은문의가조직것처으로되가이아니요 공을해서 된것이기 때문에 세탁을자조하면 문의 가빠지고 쉬해집니다.



사진은 금년여름 조선에서 류행될『지리멘』치마감○단만은 레이스처럼되엇다

우리차지

이비는 왜오는가.
시골 할머니께서 나보고십허 우시는게지.
우리 동무 연실이가 도라가신 어머니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나보다.
애기야 울지마라.
헤꼽하서 그러니.
그처라 비며젓다.
울라 저기엄마오신다.
(京城사람 리경온)

童話 농부와바람 ❶

崔秉和

옛날 어느곳에 형제두사람이 잇섯다. 형은 부자로 잘살엇지만 동생『이방』은 집안이 몹시 구차한데다가 자식만만엇다.

어느날 이방은 보리를 베려갓습니다. 그리고 그보리를 두둘겨서 말리고 잇스려니간 회호리바람이 부려오드니 만치안는 소중한보리를 몽탕 하날로 날려올려보냇습니다 이방은 몹시 화가나고 기가막혀서

『못처럼 공을드려 농사진보리를 해서가다니. 하날도 무심하지. 어디두고 보자. 앙가품을할터이니』하고 집으로도라와서 원수를 차즈려 길떠날준비를 하엿습니다. 이방은 한사코 말리엿스나 도모지 안해의말을 듯지안코 넓으나넓은 벌판으로나 갓습니다.

그로부터 이방은 몃칠동안굿도업는 벌판을 거러가려니간 외따른곳에잇는 조고마한집에 다닷드럿습니다 그런대 그조고마한집 속에는 회색빗 옷을 입은 못처큰귀신가튼 사람이 마루에 큰대(大)자 형상을하고 드려누엇습니다.

『안녕합쇼』하고 이방은 벌벌떨면서 말을하니깐

『오! 사람이냐』하고 귀신가튼사람이 대답하엿습니다. 그러고 무엇하러 이런곳에 왓느냐고 무러보므로 이방은

『저는 바람놈에게 원수를 갑흘냐고 왓습니다. 사실은 이럿습니다. 요전에 제가 얼마안되는 보리를 말리고 잇스려니간 별안간 바람놈이 그것을 톡처 갓습니다』하고 대답하엿습니다.

『응! 그바람은 죽나다. 남의 못할노릇을하엿구나』

『응! 네가 그때그바람이로구나. 자-보리를 내라』하고 이방은 그큰바람에게로 덤벼들드니 바람을 물어뜯드면서 말하엿습니다.

『지금와서 너에게 내줄보리가 어디잇니. 그러나 그대신 조흔 전대를주마. 먹을것을 청할때는 『전대야! 전대야! 먹을것을 다오』하는것이다. 그러면 그속에서 음식이 만히나올것이다』이러케말하고 바람은 이방에게 전대하나를 주엇습니다. 이방은 좀 울얼듯이 깃버하면서

『바람님! 고맙습니다. 당신덕택으로 살게되엿습니다』하고절을 하엿습니다.

『자! 이제는 집으로 도라가거라 그런데 한가지 일러둘말이잇는데 도라가는길에 결코 주막집에 들려서는 안된다』

『네 결단코 들르지 안켓습니다』이방은 천번지동하면서 도라갓습니다. 그런데 얼마안가서 유태사람(猶太人)의 주막집이 한채잇섯습니다

이방은 그집압흘 그냥 지나처갈랴고 하다가 무엇 바람이 보고잇는것도 안이고 무슨 상관이잇다 하는생각이나서 그주막집 문지방을 넘어드러갓습니다. 그리고 그전대를 길옆에다가 거러놋코 자기는 걸상에 가 안것습니다.

『무엇을 잡수실가요』하고 주인이 무럿습니다.

『아모것도 일업소 당신에게서 사먹을것이 무어이 잇다말이요』하고 이방은 전대를 향하야 말하얏습니다.

『전대야! 전대야!! 먹을것을 다우』

家庭醫學

살내리는약

問 생후금년 이십삼세의청년이온데 신장은 그리크지안흐나 살이점점만이쩌서 바로뚱뚱보와 갓습니다 알흐로도 얼마나살이 찔지모르겟습니다 나려서날파가티 호리호리하게될 간단한약을 하교하여주시요 (함흥 일독자)

答 살을내리게하는약이 잇습니다만은 일시적이오 또 부작용이잇서서 신체를 해치기쉬우니 추장할수업습니다. 그보다는 적당한 운동을시작하야 규측적으로 계속하며 지방질보다 함수탄소가 만히섞긴 음식 알기쉽게말하면 육식보다도 채소를 더섭취하도록 주의하시면 다 효과가 잇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내치핵

問 저는금년 이십세의남자인데 약일주일전부터 대변볼때면 홍문에서 대변과가티 피가나오니 무슨병입니까 위험한병은아닌지요 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기를 복망합니다 (市內一讀者)

答 출혈의정도와 혈액의성질 여하한지 자세한것을 모르니까 확적히 말슴할수는 업스나 치질그중에도 내치핵(內痔核)인듯합니다 위선매약점에가서 『아드레나린』좌약(坐藥)을 사다가 대변후에 삽입하야 보십시오 이것은 응급치료에 지나지 못하니까 근치수술을하여야 한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될수잇스면 전문가의 진찰을 밧어가지고 적당한 치료를하는것이 안전합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地下村 (三)

姜敬愛作 熊超畵

방으로 들어온 칠성이는 어재 퇴물에 옹칠린 밤까랑을엉덩이로 꽉 눌러안고 일변 칠운이가 들어오지 안는가 귀를기우리며 문을 걸엇다. 그러고등당자루를 가만히 쏘닷다. 흘러지는 석양과 쌀알흐르는 소리 솔덩이 오작입어 그는몸을 움찔하면서 얼른손을 내밀어하나하나 만저보앗다. 역시 거지안에잇는 돈생각이나서 도마저꺼내가지고 우둑허니 들여다보앗다. 비록 방안이 어두어서 그모든것들이 보이지는 안흐나눈끔가리 누구석에 박혀잇는듯햇다.

성양갑 따루 쌀과 과자 부스레기 따루꼴라노코 문득큰변이를 생각하엿다. 어너것을 주나 얼른 과자를쥐며 이것을 주지하고 하나집어입에 너헛다. 바짝 소리가 나사이에 돌고달큼한 물이 사르르 흐른다. 그는입맛을 다시고 나서 칠운이가 엿듯는가 다시 한번 조심햇다.

그는 왼손에 땀이 나도록쥐고 잇는돈을 펴서보고 한뭇두 세어보다가 이것으로 큰변의 옷감을 끈허다주면 얼마나 큰변이가 조와할까 그의 가슴은씨씨뛰엇다. 고것 웨 우리집엘 안올까 오면 내가 돈두주고 이과자도 주고 또 큰변이가 달라는것이면 내다주지 웅그래 이리생각되자 그는 어쩌지 맘이송구해젓다. 해서 성양갑과 과자 부스레기를 한데 싸서 저편 갈자리미테 밀어넛고 돈은 거지에 너흔담에 쌈만 아랫방에 내렷섯다. 그러고 뒷문것으로 바싹 다가안아서 큰변네 바자를 바라보앗다.

바자에 호박넝쿨이 컴컴히 엉키엿고 그우에 별들이 팔팔날앗다. 큰변이를 어떠케맛날까그는 무심히 발까락을 쥐고 아픔을 느꼇다. 서늘한 바람이그의 볼우에 흘러나린다. 그는안타까웟다. 지금 이발끗이 아픈것 보다도 어디가 모르게 또아픈데가 잇다는것을 느끼다.

『이애 밥먹어』

칠성이는 놀라 돌아보앗다. 어머니가 새문밖에 서잇다는것을 알자 웬일인지 가슴 한구석에 공허를 아뚝하게 느꼇다.

『웨 문은 걸엇나』

어머니는 문을 잡아챗다. 과자를 달라거나 돈을 달라라고 저리도 문을 잡아흔드는것 갓다. 그는 와락 미운생각이치밀라다.

『난난 안먹어!』

매소리처럿다. 정신이 후르루떨린다.

『장에서 뭐먹구 왓니』

어머니의 음성은 가늘어진다 언제나 칠성이가 화를 내면 어머니는 저리도 기운이 업서진다. 한참후에

『좀더 먹으렴』

『시실허』

역시 소리를 질럿다. 그러니 어머니는 뭐라구 웅설웅설 하더니 잠잠해 버린다. 칠성이는 우둑허니 안저노라니 작구만 갈자리속에 너어둔 과자가 먹구 십허 가만히 갈자리를 들석하엿다. 먼지내 싹하게 올라오고 빈대냄새 역하다. 그는 갈자리를 도루노코 내일아츰에 큰변이줄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되지하고 휘 돌아 안고도 부지중에 손은 갈자리밑으로 들어갓다. 큰변이 줘야지 냉큼 손을떼고 문턱을 꽉붓들엇다.

마친 바람이 산들산들 밀려들어 이마에 흐른땀을 선듯하게한다. 그는 얼른저삼을 벗어던지고 그바람을 안앗다. 외롭픈 이 가리운듯하야 벼에다몸을부비치니 어떤패미가 입어 부지비치고나니 숨이차고 등가죽이 벗어저 아팟다. 그래서벼을 붓들고 일어나 나와앗다.

몸을 움직이니 아니 아픈곳이 업다. 손끗에 가시가 박혓는지 따금그리고 팔뚝이 쓰라리고 아까 다친 발까락이 새삼스레히 더쏘고 그는 꼭참고걸엇다

울바자미테 나란히 서잇는부초꽃끄테 별빗인가도 의심나게 힌꽃이 다문다문빗나고 간혹 마틀수잇는 부초냄새는 게집이것 해 와섯는가 싶게 야릇햇다. 그는바자 곗트로 다가섯다.

큰변네 집에선 모기불을 피우는지 향-긋한 쑥내가 솔솔 넘어오고 이따금 모기불이 껌벅껌벅하는데 두런두런 하는소리에 그는 귀를 세우니 바자가 바삭바삭 소리를내고 호박입의 솜털이 그의 볼에 따금 그리다. 문득 그는 비자저편에 큰변이가 숨어서 나를 엿보지나안나하자 얼굴이화끈 달앗다

어느때인가 되어 가만히 둘러보니 옷에 이슬이 촉촉하엿고 부초꽃이 울속에 잠긴 차돌처럼 그빗을 환히 던지고잇다 모기불도 보이지안코 킥킥하며 어디선가 벌네 소리가쓰르롱쌔르룽하고 낫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가슴이답답하엿다

武田發賣品

月經

寡少、不順、不感症

結婚期前後의
身心變調에依한神經障害
初老前後期의障碍
子宮發育의不全
頭痛、腰痛、倦怠、月經痛
下腹痛、脂肪過多、發汗
貧血、四肢冷感、神經障害、憂鬱症、不眠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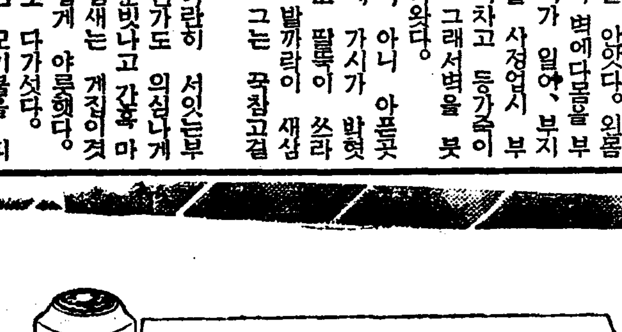
오바호르몬은 近者에高唱되고잇는女性호르몬 製劑即女性特有의 機能을發現식히는 重要한卵胞호르몬이다.

本劑는 月經을調整하며、活力이 減衰되는 諸臟器의機能을 恢復하며、血色素量及赤血球를 增加하야 新陳代謝를旺盛히며 卵巢機能을 活潑케하며 女性의 健康을 保護增進식힌다. 故로以上의諸障碍에 對하야 好適劑로서推奬되고잇다.

乳汁分泌不足 減退에도賞用되는

錠劑 百單位 三〇錠(一圓五〇) 一〇〇錠(三·五〇)
五百單位 三〇錠(一·六五) 五〇錠(三·七五) 一〇〇錠(七·二〇) 三〇〇錠(二〇·〇〇)
粉末 一瓦 一〇瓦(一圓六〇) 二五瓦(三·六〇)
(千單位) 一〇〇瓦 (一三·八〇)
注射液 水溶 一cc 五管入 一cc 一〇管入
水溶(百單位) 一cc 五管入
(五百單位) 一cc 五管入 一cc 一〇管入
油溶(千單位) 〇·五cc 五管入 一〇管入

新發賣 高單位オバホルモン 廉價提供
高單位製品은近者學界의趨勢에鑑하야、特殊症狀에對한强力治療劑로서研究製出된新製品이다
一萬單位 一cc 五管入
五萬單位 一cc 三管入
二十五萬單位 一cc 一管入



申込次第 說明書 無代進呈

★女子호루몬★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루몬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 存在에 對하야 ❶

金基錫

人間과 存在

人間은 人間을 思惟한다 人間은 人間의 思惟를 思惟한다 우리들은 人間에게 어떠케되야서 思惟란것이 잇고 人間이 어떠케되야서 人間및 人間의 思惟를 思惟하게되얏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人間에게 思惟가 잇슴을 알고 人間의 思惟에 잇서서 人間을 思惟하는 일이 한 개의 眞實한 課題임을 아나니 過去의 만흔 人間을 哲學한 이들에게서 우리들은 人間및 哲學의 바른길을 배호지안허서는 안된다.

哲學은 人間에 對한 思惟에서 出發하야 人間에 對한 思惟에 歸還한다. 人間을 哲學하지안는 哲學은 진정한 意味의 哲學은 아니다. 現代思惟는 世界를 엇더케하나의 自己發展過程으로 본다. 그러하야 人間의 存在및 그 思惟는 이 어떠케하나의 自己發展運動의 한 조그만 環境에 지나지 안는다고 한다. 그러나 世界의 構造를 運動의 論理에서 說明하고 人間의 存在를 歷史性, 社會性에 잇서서 規定하려는것부터가 人間의 思惟的行爲가 아닐가. 歷史學이 人間을 規定할것이 아니고 人間學이 歷史와 社會를 解明해야한다. 우리들은 여기서 人間이 가지는 만흔 問題가 人間이란 무엇인가라는 人間의 **基**本規定에 對한 「마르크」에 나선다는 「칸트」의 말을 想起하게된다. 人間의 存在에 對한 規定은 진실로 人間의 모든 理論的 絶對의 前景에 노혀지는 가장 基本的인 課題인것이다.

人間은 存在의 世界속에 사러잇다. 人間의 槪念은 存在의 槪念으로 還元된다. 人間을 存在로 보는것이 人間에 對한 基礎的인 規定이 아니면 안된다. 存在의 槪念은 時間의 槪念과 얼매인다. 存在는 嚴密한 意味에 잇서서 時間的 存在이다.

時間에 잇서서 주어지지 안는 것은 存在는 아니다. 時間에 잇서서 주어진다는것은 부단한 流動「帳幕」속에서 주어지는것을 이름이니 움직이고 박고 잇는 것이 아닌한에서 그것은 存在하는것은 아니다. 存在는 時間에 잇서서 부단히 움직이고 흐르고 옮겨간다. 存在의 世界는 時間性의 世界이다. 存在를 생각하는일은 時間을 생각하는 일에서 出發한다.

우리들은 人間의 槪念이 存在의 槪念속에 잇슴을 보앗다. 그리고 存在의 槪念이 時間의 槪念, 運動의 槪念과 얼매임을 보앗다. 여기서 우리들은 人間을 時間的인 **存**在로 理解하는것이 存在로서의 人間의 基本規定임을 본다. 우리들은 人間이 한 存在임을 보앗다. 人間이 그 자신의 地盤으로서의 存在의 속에 잇슴을 보앗다. 人間에 對한 思惟는 存在에 對한 思惟에서 시작하지안허서는안된다. 이제우리들은 存在란 무어인가를 무러야하고 存在를 뭇는데 잇서서 哲學의 가장 眞實한 課題를 생각하는자리에 드러선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周圍에 헤일수 업는 만흔것들이 잇슴을 본다. 그리고 그 만흔 것들이 한가지로 存在의 世界를 이룸을 본다. 人間및自然은 存在로서의 그리고 存在의 世界속에 잇서서의 人間이요 自然인것이다. 存在를 떠나서잇는 어떤 實在란것을 우리들은 생각할길이 업기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의 말은 「存在는 存在 하는것이요 非存在는 存在하지 안는다」라는 생각하는이들에게 잇서서 길이 도라보아진 命題인것이다.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新劇樹立과 『觀衆本位』問題 ⑤

李石薰

그러면 『觀衆本位』는 무어을 意味함일가?

柳君은 나의 批評에 對하야 『觀衆에게 親切하자는것이 아니어던가』 하고 想하면서 『觀衆업는 音樂會가 成立되지못하는거와 마찬가지로, 演劇은 觀衆을 無視할수 업다』는 劇理論의 ABC를 끄집어내어 나를 幼稚하다고 한번 뽐내보앗다.

대체 柳君은 『親切』이란것과 『ㅡ本位』란것을 同意語로 使用하는것부터 나는 不滿이다. 文字的으로 肯定者가 아닌以上 이두가지 **術語**를 混同하지는 안을것만치 『本位』란 말은 『親切』以上의 强한 意味를 가진 말일것이다. 다시말하면 『親切』이란 말은 이便의 主體은 主體대로두고 相對者에게 이편의 생각하는바에 따라서 비위를 마처주는것이오 『ㅡ本位』란것은 모ー든 主觀을 죽이고 相對便을 主로하는 絶對的意味를 가젓다. 오늘날 新劇과 너무 乖離에 잇는 低級한 觀衆을 相對로하는 劇運動을 그들本位로 하라면, 적어도 二步退却은 커녕 三四步를 退却하야 通俗劇을 하기에 熱中하여야 할것이니, 正히 新劇의 墮落이 아니면 自殺이라 하지 안흘수 업다는 말이다! (興奮에 잇서서 演技가 이를 許할 먼저도 疑問이지마는) 도가령, 柳君의 所謂 『大衆本位』의 主張을 『觀衆에게 親切히하자』는 뜻이라하자. 우에말한 以上의 다른것을 誇張한다하고 그것은 卑俗한 觀衆에 對한 興行劇的 媚笑이며 아첨以外의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나는 어느나라의 新劇運動이나를 莫論하고 大衆에게의 媚笑나 아첨으로 出發하거나 또는 目的을 達햇다는 말을 듯지못하엿고 언제나 先驅的役割을 하면서 大衆을 訓練하야 써 이便으로──即 놉흔 레벨로 끄으려올리기에 努力해야할것이다 맛는다 거듭말하거니와 先驅的役割이야말로 新劇의 **任務** 일것이오 大衆을 놉흔데로 이끌어올리는데에 그文化的意義가 存在할것이다!

그러므로 新劇樹立은 『觀衆本位』니하는 誤謬를 犯함이 업시 그들은 當面한 大衆層을 獲得하기 爲하야 以上列擧한바 缺點을 克服하기에 不斷한 努力을 하여야할것이오 同時에 創作劇樹立을 슬로ー간으로 邁進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即 文化의 諸段階上과 아울러 諸君의 모ー든 技術의 進步는 그만큼 大衆을 吸收해 드릴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은 五年이나 六年의 짧은 時日로 演劇할수는 업는 問題다. 世界的 레벨을 견주며 『싸베ー트』 演劇史의 五百年이란 長久한 時日을 아울러잇지 말어야할것이다.

◇

『春香傳도 新劇이냐?』 하는 나의 엉뚱한 質問에 對하야, 『무엇이나 近代劇의 形式으로 表現한것은 新劇이다』라고한 柳君의 對答에 對해서도, 나는 찬성할수 업다.

『입센』에 起源을 둔 近代劇이 이미 오랜 歷史를 가지는동안에 만히 **變遷**해온것도 事實이겟고 그 時代 時代에 잇서서 『新劇的役割』을 演出해온것도 事實이겟다.

그러나 오늘에 잇서서 『新劇樹立』運動을, 단순히 『近代劇樹立』運動으로 意識한다하면 이것은 헐개빠진 수작이 아닐수 업다. 文化와 時代感覺은 變遷되여가는것이니 가령 一九三六年에 잇서 一八九〇年代의 時代感覺을 表現한 近代劇을 우리는 新劇이라할수 잇슬것인가? 勿論 그時代에 잇서서는 新劇的役割을 햇슬것이나 只今에 와서는 이미 新劇이라할수는 업는것이다. 即 新劇이란것은 그 時代感覺을 캣취하야 先驅的 藝術的 演劇으로서 바른 意味의 純粹한 現代劇으로 解釋해야할것이니 單純히 近代劇의 形式으로 表現한것을 모두 新劇이라하여서는 잘못이라고 나는본다.

까닭에 『春香傳』──이미 數百年前 女必從夫의 封建的思想을 鼓吹한 『春香傳』을 近代劇의 形式으로 表現하엿다하야 一九三六年에 와서도 『新劇』이라고 主張하는 柳君의 演劇的頭腦야말로 筆者以上으로 **幼稚**하니 若何오? 君! 莊嚴한 演劇은 오히려 君의것이다!

君이 『道德評論』이라 痛罵하엿슴에도 不拘하고 結果에 잇서 君에게는 『道德評論』이 되것을 理解하는 聰明을 가질것과, 新劇樹立을 爲하야 彼此間 넷날의 友情을 잇지말고 더욱 공부하며 더욱 努力할것을 切望하며 펜을 노코저한다.

關北紀行斷章 ❶

起林

1 夜行列車

샛바람에 달아뜨는
거리에 드러서자
汽車는 추워서 앙 우럿다.

2 機關車

나의 終點은 어디이냐?
나는 이처럼도 늘
努力을 意志해야 하는
悲慘한 機關車냐?

3 山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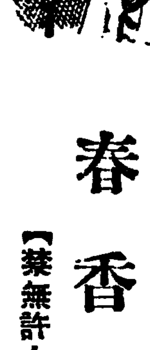
茂山이 여기서 十里란다.
못두막엔 이글이글 드덤굴도 타리라.
나려서 아즈머님네와 감자를 버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버끼며 이밤을 새고 가고십다.

解冬雨 (一)

온다 온다연서도 구지 머뭇거리논 봄도 아침부허 나리는 해
동사비속예 가느다란 그발자욱소리가 틀니는것갓다。어롱대 구
덧듣 地의 주롬살도 이번비에는 다풀리겟지? 버들가지는 실오
리보담도 간은테 비사발은 버들가지보담도 며간울다。문와가나
가 손바닥에 마저보고신혼 봄비! (亦如)......

戱曲 春香傳 (四)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夢龍 벌서 아츰밥이냐?

兒孩 벌서가 무엇이어? 해가저러케솟앗는데.

(지게에서 큰항지를 내려놋는다 그안에는 밥이 갓득갓득 다 가지고온 바아지에다가 밥을 노나 담는다 그바가지한 엽헤 김치 콩나물등 반찬을 놋는다.)

夢龍 (兒孩의하는양을 보고섯다가) 나도 아츰밥이나 좀 어더먹고갈까? 이애 좀 가는 헤인이니 요긔나 좀 시겨다고. (한엽에 안는다)

兒孩 (되잇노라) 제마답것! 재수업게 아츰부터 웬 거지어? 재수

(如前히 밥을먹는다)

(모심든 農夫들 갈갓갓을쓰고 언덕을 넘어오다 그중에는 깽맥이, 북等을 두들기면서 들어오는 農夫도 三四人잇다. 물가에 다보일만큼 거더올린 잠뱅이들을 입엇는데, 대리는 勿論이오, 옷 얼굴할것 업시 흙투성이다.)

農夫甲 (그중압서 들어오며) 내 밥 만히 담엇나?

農夫乙 아이 덥다. 벌서 여름일세.

農夫丙 (夢龍을보고 칭울퇴 배튼다) 오늘아츰에도 웬 파객이어

적이어!

(農夫들 바아지 하나식을 차지하고 古木미테안저서 밥을 먹기始作한다)

夢龍 여보, 아츰 한끼 어더먹고가세.

農夫甲 읍에가면 부자집들 만흔데 하필 여기와서 웨이러오?

農夫丁 (늙은 農夫다 農夫甲을 꾹찌르며) 밥한술 가지고 세도 쓰게 무언가? 엽에 한술밥으로 서로서로 노나 먹세.

(農夫丁 各人에게서 밥을한술식 어더모은다)

農夫甲 (밥을 한술 떠주며) 여보소 너무 후한체마오.

農夫乙 가만두게 이사람을 은 도포를 보아하니 그러하여도 쇠고일세。(밥을 한술떠준다)

農夫丁 (밥을 한그릇을 두둑이 모아 夢龍에게 준다)

夢龍 곰맙소 늙은이。

(夢龍 가리 밥을 먹기 시작한다)

農夫丁 임자는 어듸 살며 어듸로 가는길이오?

夢龍 나는 서울 사는 사람으로 과거차로 전라도로 내려오는 길에 공교로히 로자는 떠러지고 시장은하고 그러니 어쩔수 잇소 이러케 체면불고 하고 신세를 지게되는구려.

農夫丁 참 객지에서 로자 떠러지면 죽는날이지. 보리밥이라도 양껏 자시오.

夢龍 금년에 시절은 어떠소?

農夫丁 미상불 시절이야 금년에 잘들엇지. 알맛게 비도와 주시고 해서 일하기에 그저 신이 붓적붓적 나지오.

農夫丙 제기랄것! 시절이 잘들면 무슨소용이어? 원님들이 맛나야 살기가 낫지.

夢龍 그러면 이고을 원님이 부랑합니다?

農夫乙 (밥수가락을 노코이러서며) 말마소. 우리고을 원님은 밥잘먹고, 술잘먹고, 호미질 잘하고, 계집질 잘하고, 갈키질 잘하고, ……게다가 소시랑질까지 잘하니 그만하면 명관이지 하하허……(一同따라 웃는다)

農夫丙 하하하…명관이고말고,

夢龍 아니 이고을 관장이 누구요?

農夫甲 앗다 경치게도 뭇는다 밥한술 주엇스면 먹고나 갈일이지 공사는 웨 뭇고 관장은 무엇하려 찻소? 네가 암행어사여? (얼골을 붉히며 덤비려한다)

農夫丙 에라, 에라, 가만 두어라, 의복꼴을 보아하니 춘향이 서방 영락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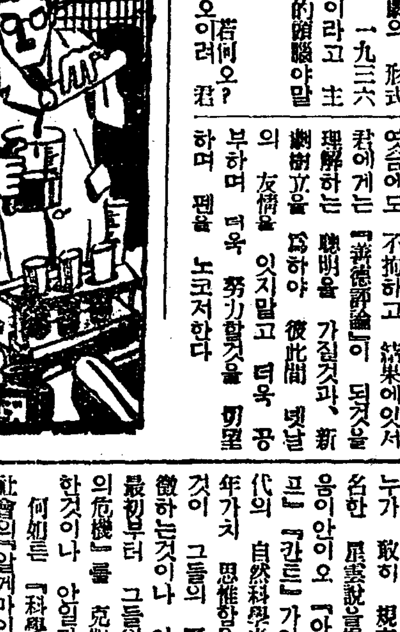
農夫甲 이자식! 이비렁뱅이를 뉘게다비하느니?

農夫丙 아니 춘향이가 네에미란 말이야? 춘향이 서방 도령도 어듸서 비렁뱅이가되엇기에 춘향이를 안차자 오는 것 아니어?

危機의 自然科學

그超克의 길은 무어인가? ⑩

金宬圭



×

以上에 본바와 가티 現代의 指導的物理學者의 大部分이 量子論에 關聯하야 가지고잇는 哲學的見解는 두말업는 마스호主義的不可知論과 觀念論이다. 哲學的 純觀念論으로서의 因果律을 尙今도 **堅持** 하고 잇다는 M·프랑크의 不徹底한 唯物論이 오즉 唯一의 例外가 될것이다. 그러나 그 『프랑크』조차 一邊으로는 『쉬리딩거ー』를 攻擊하야 마스호主義的인 因果性否定의 思想과 鬪爭하며 다른 一邊으로는 宗敎를 擁護하며 『物質은 意識으로부터 派生한것』이라고 公言하는 狀態이다.

이러한 寒心한 事態는 自然科學者들의 哲學에 對한 默殺的 或은 嘲笑的 態度에 起因하는것이다. 哲學에 對하야 無關心의 態度를 取하는 그들은 事實에 잇서서 最惡의 反動的哲學(不可知論 맛호主義 그中 進步的이라는것이 機械的 唯物論이다)의 捕虜가 되여잇는 狀態이다.

그러나 現代의 自然科學者들의 哲學的 無關心은 決코 偶然的인 現象은 안일것이다. 市民社會의 勃興期에 잇서서 自然科學者가 哲學者로서 現出한 事態를 생각하야보자. 『베이콘』『데칼트』『라이프니츠』等을 누가 純粹한 哲學者라고 稱할것인가? 或은 그들이 思唯의 字도 모르는 自然科學者라고 그 누가 敢히 規定할것인가? 有名한 原子說을 提唱한 사람은 달음이 안이오 『아카데믹쉬·칼로소』 『칸트』가 안이엇든가? 現代의 自然科學者들은 低能의 靑年가치 思惟함을 嫌惡한다. 그것이 그들의 歷史的運命을 象徵하는것이나 안일가? 그들은 最初부터 그들의 손으로는 『科學의 危機』를 克服치못함을 自覺한것이나 안일가?

何如튼 『科學의 危機』가 市民社會의 『알게마이네·크리ー제』의 上部構造에 잇서서의 反映임에는 틀림업슬것이다. 市民社會의 크리ー제가 人類의 크리ー제가 안인것가치 現代自然科學의 危機도 何等의 危機가 안이오 飛躍的인 進步의 前提라고 볼수가 잇슬것이다. 그러타면 進步의 萌芽는 보이지안흘배도 안이다. 量子力學이 **齎來** 한 難問題─微視的世界와 巨視的世界間에 빠진 深淵에 對하야 『라우에』는 말한다.

『量子力學의 形式主義로부터 因果性의 原理의 不成立性은 歸結되지 안는다. 그것은 겨우 『뉴ー튼』力學의 槪念이 原子過程에는 適用되지 안는다는 結論을 實證한데 不過하다.』

『現代物理學者가 自然의 可知性의 原理를 放棄한것─그것도 다만 至今까지 그것을 完全히 實現치못하얏다는 理由로 放棄한』것은 말이 안이된다고 『라우에』는 憤慨한다.

『不確定性原理는 모든 粒子力學에 對하야는 限界를 設定할수 잇스나 決코 모든 物理學的認識에 對하야는 限定을 設定할수 업다。』(『라우에』─『코ー른만』의 引用에 依함)

이러한 『라우에』의 思想은 現代 불조아 自然科學者中에는 極히 稀貴한것이다. 有名한 物理學者 『란즈반』은 『에딩톤』『보ー른』『하이젠벨그』의 **態度**를 『知的墮落』이라고 罵倒하며 다음과 가치 指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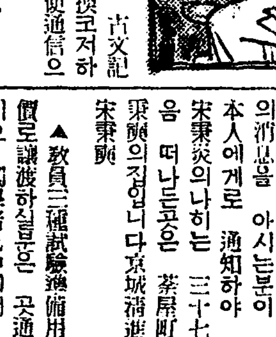
『全非決定論의 土臺가 되야 잇는 『不確定性原理』는 單只 速度位置等의 槪念이 巨視的過程에서의 模寫인限에 잇서서 그것이 微視的世界에는 適用되지 안는다는것을 意味할뿐이오 決코 因果性의 拒否의 必然性을 말하는게 안이다.』

『物理學者는 『不可觀測性』을 喧傳하고 硏究를 斷念하는 代身 粒子 그것을 더一層 詳細히 硏究함이 必要하다』고 그는 强調한다. 그의 意向에 依하면 現代의 物理學者들이 如何히 抵抗하야도 物理學의 發展은 不可避的으로 辨證法的唯物論에 到達한다는것이다.

萌芽는 生長할것이다. 自然科學의 發展──그것을 土臺로한 이 自然成長은 어떠한 힘으로써도 **防禦**할수 업슬것이다. 그러나 科學者는 이 自然成長을 다만 傍觀함으로써 滿足할것인가? 自然科學에 잇서서의 辨證法的唯物論, 即 自然辨證法의 修得──이것이 現代自然科學者의 緊急한 義務가 안일것인가? 그것에 依하야서만 『危機』의 超克은 可能하지나 안흘것인가?

─끗─

▲訂正 本文第八回分最後段第五行 『基本的紐』以下에 『關의 一인因果性의 槪念이 崩壞되엿다는것이다。』가 脫落되엿기에 訂正합니다.



▲다음에 關한 書籍 古文記錄 實物等을 買入交換코저하나이다. 但 반다시 郵便通信으로 照會하십事。

一、風俗, 習慣에 關한것
二、演劇, 舞踊에 關한것
三、歌曲, 民謠에 關한것

通信處 京城府桂洞一三三 朝鮮民俗學會

▲本人의 從弟되는 宋秉奭(一名昌里)이 十四年前(大正十二年七月) 어대로간後 存沒의 消息을 도모지 알길이 업스니 萬一그를 常者나 또는 그의 知遇로서 그의 消息을 아시는분이 게시거든 本人에게로 通知하야 주십시요 宋秉奭의 나히는 三十七歲요 맨지음 떠나든곳은 薺屋町四寸兄宋秉徹의집입니다 京城淸進洞二四二 宋秉殷

▲敎員三種試驗準備用書籍을 低價로 讓渡하실분은 곳 通知하야주시오 獨學諸兄中에서 高等普通學會講義錄과 日本內地法制學會의 普文講義錄을 低價로 讓渡하실분은 곳 通知하야주시오 仁川少年刑務所內 金炳善

▲지난五日밤이나 六日아츰에 市外 淸凉里附近이나 市內崇二洞 東崇橋압해서 『黃梅泉詩集』이라는 冊을 주으신분이 게시거든 本冊이나 左記住所로 通知해주시면 厚謝하겟슴니다。 市內崇二洞五七의一 李潮

▲大學文科三學年生 江原道麟川 二十一歲, 性從容端正, 學資의 一部分 求하기 爲하야 家庭敎師나 書生자리 求하오 意向게신이는 高陽郡恩平面弘濟里四〇 李光洙에게 問議하시옵

新刊紹介

▲文化農報 三月號 東京市麴町區丸の內一ノ八 文化農報社發行 振替東京五七三三六四番 定價一十錢

▲新兒童 三月號 京城府臥龍洞七一 新兒童社發行 振替京城二三八五三番 定價十錢

▲基督敎報 第四十五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五錢

各學校入學試驗問題

金泉高等普通學校

算術(其一)

(注意)(3)ト(4)トハ運算ト答(10)ハ答其他ハ式ト運算ト答トヲ書ケ。

(1) 鷄卵500個ヲ鐵道便デ送ツテ來タガ其ノ中ノ1割8分ハコハレテ居リ8分ハ腐ツテ居タ。ヨイモノハ幾ツアツタカ。

(2) 梃子ガアル。支點カラ一方27糎ノ所ニ1·4瓩ノ物ヲカケタ。支點カラ他ノ方35糎ノ所ニ何瓩ノ物ヲカケルト梃子ハ釣合フカ

(3) 長サ40cmノ紐ガアル。コノ紐デ正方形ヲ圍ム面積ト二ツノ邊ガ12cmト8cmノ矩形ヲ圍ム面積トハ何程チガフカ。

(4) 或日午前8時45分ニ家ヲ出テ學校ヘ行キ午後3時25分ニ歸ツタ。ソノ間ノ時間ノ$\frac{1}{8}$ハ學校ヘノ往復ニ費シ,$\frac{5}{8}$ハ授業ヲ受ケ,殘リハ食事ト休息ノ時間デアツタ。食事ト休息ノ時間ハ幾ラカ。

(5) 球ノ體積ハ其ノ直徑ガ1粍デアル立方體ノ體積ノ0·52倍デアル。地球ノ直徑ヲ12700kmトスレバ體積ハ幾立方キロメートルカ。

(6) 目方4433ノ空瓶ニ鹽水ヲ滿タシテ其ノ目方ヲ秤ツタラ1310gアツタ。次ニコノ瓶ニ淸水ヲ滿タシテ秤ツタラ12933アツタ。コノ鹽水1ccノ目方ハ幾グラムカ。

(7) $\left(8\frac{1}{3}+0.75\right)\times\frac{4}{9}+8$ ヲ計算セヨ。

(8) $\left(3\frac{5}{6}-2.4+1\frac{7}{15}\right)\div1\frac{14}{15}$ ヲ計算セ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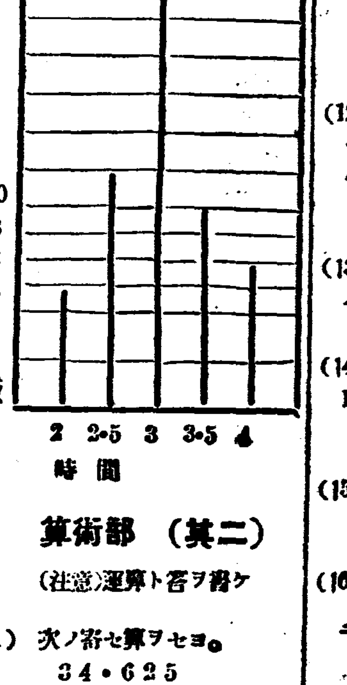
(9) 或人銀行カラ金750圓ヲ3月30日カラ8月31日マデ日步3錢デ借リタ。元金合計何程カ但シ借入返濟ノ日モ共ニ利子ヲ附ケルモノトス

(10) 右ノ圖ハ或中等學校或組ノ生徒ニツキ調ベタ家庭デノ勉強時間數ト人數トノ關係ヲ示シタモノデアル

(イ) 圖ヲ見テ次ノ表ニ適當ナ數ヲ書キ入レヨ。

勉強時間	人數
2	
3·5	
3	
3·5	
4	

(ロ) コノ組ノ生徒ノ勉強時間數ノ平均ヲイヘ。



算術部(其二)

(注意)運算ト答ヲ書ケ

(1) 次ノ寄セ算ヲセヨ。
34·625
1·37
10·9
答

(2) (6+2)×5−10ヲ計算セヨ。 答

(3) 甲ト乙トノ比ガ3:4デ乙ト丙トノ比ガ6:5デアル。甲乙丙ノ連比ヲ求メヨ。 答

(4) 0·5米立方ノ水ノ目方ハイクラカ。 答

(5) 電柱ハ全體ノ0·24倍ヲ地中ニウメルモノトスレバ12mノ電柱ハ何程ウメネバナラヌカ。 答

(6) $6\times\{(5+1-3)+7\}$ヲ計算セヨ。 答

(7) 時計ガ5時ヲサストキ長針ト短針トノ間ノ角ハ何度デアルカ。 答

(8) 蜜柑ヲ幾ツカ買ツタガ其ノ中ニ腐ツタモノガ37アツテソレハ全體ノ4%デアル。皆幾ツ買ツタカ。 答

(9) 年利率ガ5分,元金ガ800圓,期限ガ3年デアルト利息ハ何程デアルカ。 答

(10) 2·87×6·6ヲ計算セヨ 答

(11) 次ノ反比ヲ求メソノ値ヲ求メヨ。
3m平方:3平方メートル 答

(12) 20マデノ數ノ中デ2ノ倍數デモアリ、3ノ倍數デアル數ハ何何カ。 答

(13) 1時間ニ39km進ム汽車ハ7時40分間ニ何程行クカ。 答

(14) 0·6kgガ27錢ノ砂糖1kgノ價ハ幾ラカ。 答

(15) $6+\frac{7}{3}+\frac{2}{9}$ ヲ計算セヨ 答

(16) 或數ヲ$\frac{3}{8}$デ割ルト$4\frac{5}{13}$ニナル。此ノ數ハ幾ラカ。 答

(17) $\left.\begin{matrix}6:8\\10:9\end{matrix}\right\}=5:X$ ヲ解ケ。 答

(18) 1500圓デ買ツタ土地ヲ1300圓デ賣ルト損失步合ハ何程カ。

(19) 50錢銀貨ガ1枚、10錢白銅貨ガ3枚、5錢白銅貨ガ5枚アル金高ハ皆デ幾ラカ。 答

(20) 次ノ分數ヲ約分セヨ。 $\frac{165}{825}$ 答

淋疾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泌尿器科 醫學博士 片山義郎先生 實驗推獎

元東京市電氣局病院泌尿器科醫長 醫學博士 橫尾守中先生 實驗推獎

梅毒에 對한 六〇六號와 가티 淋疾治療의 特殊靈效에 잇서서 『銀』을 凌駕하는것이 업슴은 臨床界一致의 定說이나 從來와가튼 藥化學으로서는 銀內服의 必須條件인 銀을 極微粒分子化식힌것이나 또 胃中의 鹽類蛋白等의 化合에 依한 治効減殺를 回避식히는 油類媒分散도 다가치 不可能한 關係엿슴으로 겨우 局所注入에 利用되는 程度에 끈치고 一方古來로 慣用되여오던 白檀油는 胃腸障害의 副作用이 激甚하야서 充分한 奏效를 보기까지의 連服을 困難케함으로, 患者나 醫家와, 玆에 淋疾治療法은 아조길이 막혀서 헛되이 傍觀하야, 症狀의 進行을 그대로 둘수박게 업는 狀態로 되엿슴은 임의 오랜일입니다. 安全……治効卓越한

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

그런대 過般 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即 金屬微粒子를 有機溶媒에 分散식힌 世界的新發見을 達成하야서 藥學의 賞을 獲得한 京都帝國大學教授 堀場理學博士는 小田切理學士와 協力, 銀白檀油中에 極微粒크로이드狀으로 濃厚分散케하는 應用研究를 게속하든中 드듸여 그것을 成就하고 世界어느나라에서도 企及치 못할 『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를 製出하야 バロール라는 名稱을 부처서 널이 天下에 公表하는 바입니다

接殺菌消炎作用을 하고 또 溶媒─白檀油도 單一服用의 境遇와 가튼 副作用이 업고 尿에 極微粒과 가치 流出되야서 尿道의 防腐, 消毒을 營爲하면서 相乘的 藥効를 顯著히 短縮식히는 것은 知名臨床家의 實證으로 明白하여진 바입니다.

銀コロイド內服 治淋新藥(製法特許) バロール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의 特許施設인 理化學的 操作으로서 堀場博士小田切理學士監督下에 嚴製된 バロール의 銀分子는 顯微鏡下에도 볼수가 잇는 만큼한 極微粒임으로 吸收深達力이 大端히 迅速하야서 尿道粘膜, 皺襞海線體組織內는 勿論, 攝護腺, 鼠蹊部淋巴管, 副睪丸, 婦人의 膣, 子宮, 腎盂等의 器質깁히 潛在한 淋菌病原巢에도 빠지지안코 浸透, 直

本劑의 特色

一、從來의 銀局所注入劑는 顆粒이 너무 커서 吸收가 良好치 못하고, 또 使用法이 良好치 못하면 淋菌을 後部로 몰아너흘 危險, 不快不便이 不少한것도, バロール는 無臭無味한 カプセル入의 內服으로 服用하기 甚히 簡單하야서 조금한 手苦도 안들고, 더구나 부라운運動을 利用한 銀코로이드는 如何한 深部까지에도 均霑直達하는 故로 効驗이 著大합니다。

一、バロール는 血管淋巴管에 內攻하는 特性을 가지고 잇슴니다. 그럼으로 淋毒性內部疾患에의 移行을 阻止할뿐 아니라 이의 內攻한 것에도 原因療劑로서, 이것은 バロール가 綜合的治淋藥으로서 本格的 治療의 主力에 推奬되는바이나, 敢히 臨床家患者各位의 實驗을 願합니다.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內地 十五錢

適應症 淋毒性尿道炎, 膀胱가타루, 淋巴腺炎, 攝護腺炎, 副睪丸炎, 子宮內膜炎, 腎盂炎, 女子尿道炎(消渴), 喇叭管炎, 婦人淋毒性疾患

◎バロール는 全國各地有名藥局藥店에 販賣하오며 萬一品切인 때는 藥品部에 販賣합니다 振替又는 左記에 代引으로 注文次第急送함

代用藥업다 本劑는 本邦에서 처음으로된 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인 고로 絶對로 他에 類似品업다。買求하실時는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製品 バロール라고 指定하시오

文獻進呈 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拔刷·京都帝國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器科敎室講師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記述文獻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 振替東京五四〇番·代表電話神田二〇五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一丁目 振替大阪七七九五番·電話北濱三三五九番

黃昏 【3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새사장 (七)

여름날 승석때다。

준식은 볼일이 잇서서 어듸로 나가고 놀러왓든 그의동무 —『녹삭구』라는 별명을 뭇든 키보 라범(洛範)이와 『길림당나귀』라는 별명을 듯든 말나뱅이 긔래(基來)가 준식의 방에 남아 잇다。

식끈ㅅ중이 나서、준식이가 장궤로 쓰든 석유상자에 기대여 깜박 잠이 들엇든 길림이가 푸서시 머리를 들며

『온、비러먹을 흠—』

하고 쓴 입을 다시며 개걸스레한 눈을 썩썩 부빈다。

키보는 아래우ㅅ방 사이ㅅ벽 구멍에 달린 전등밋헤 안저서 준식이가 보든 책을 본누라고 아무 대구도 업다。

키보를 이윽히 끔적끔적 드려다보고 잇든 길림이는 별안간 땅이 꺼질드시 목맨 웃음을 야단스레 터처놋는다。

『핫 하하하……윽 흐흐흐…』

그리자 키보는

『흥 이놈의 당나귀、오늘은 아시긴녁부터 우는구냥、야、아직 새벽이 멀엇다』

하고 속도모르고 픽 웃는다。

시계가 업는 벽촌에서 당나귀 울음을 새벽신호로 일어나든 옛날의 기억도 얼핏 떠왓다。

『야 녹삭구야』

하고 길림이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언뜻 본 괴상망칙한 광경을 생각하며 불럿스나 키보는 아무 대답도 업다。

『너 미인이 되고 싶호냐? 야……』

그래도 여전히 대구가업다。

그는 지금、책속에서 리해하기 어려운 대목을 만나서 머리를 짜듯 미간을 씨묵룩그리며 끌몰히 글을 보고 잇다。

『흥—한닐은 재수 비겟다。녹삭구가 미인이 돼뵈엿스니、영히……』

길림이가 저혼자 푸념하는 군소리다。

『미인?』

키보는 그제야 길림이를 보며

『멋진놈!』

하고 쭝긋 웃는다。

『야 눈、누야、네가 내덕에 미인이 됏다』

하고 길림이는 이애기를 끄낸다—

『내가 지금 꿈에 어떤 촌엘 갓는데 그야말루 정말、청사초롱에 불 밝히고 그앞에 독따은 [illegible] 무릅흘 딱 세우고 그우에 새서방 도포ㅅ감을 주섬주섬 올려노코 침새질을 하는데 그 바눌끈 손이 어떠케 섬섬옥수든지 눈에 너허도 알흐지 안켓드랑 그래서 눈이 뚜러지게드려다 보다가 그만 정말 눈을 떠다는 을 떠보니 그게미인이 아니라 바루 너드라 녀야。전기ㅅ불아래서 글 읽는것이 그러케 뵈엿단 말이다。에—퇴、재수업서』

하고 길림이는 열어논 문밧게 마른침을 탁 내배ㅅ는다。

『하하하……시러배 자식!으흐흐흐……』

키보는 그만 연성 웃음이터저나와서 견듸일수가 업섯다。

『그책이 새서방 도포로 뵈건、또모르겟다만 글세 저 북더갈구리가튼 더런 손이 섬섬옥수로 뵈다니 꿈도 분수가잇지엉히……』

『이놈아 네가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잇스니까그러치……하하하하』

키보는、잠잘때에 조곰 까드버지는 버릇이 잇는 길림이의 눈을 생각하며 또 웃음이 터젓다。

길림이는 키보의 거츤 손과 그손에 쥐여진책을 마뚝지 안케 바라보며 입을 버륵버륵 씨루다가 별안간、

『쉬——』

하고 키보를 쿡 찌르며 손을 내 떤다。소리를 내지말나는 뜻이다。

키보도 아라채인드시 잠자코 입만 실룩어리며 다시 책을 드려다본다。

곗방에서 구수무려한 코ㅅ노래가 끈허질듯、가늘게 흘러온다。그곡조가 『녀공의노래』인것도、또는 그노래부르는 녀자가 누구인것도 그들은 곳 알어마칠수 잇섯다。그노래의 주인공은、그들과 가튼공장의 녀공인 준식의 주인집딸、정님이다。

그는 말석만、녀공이요、그 부르는 음색은 얼러의 노래로서는 너무 청승마즌 편이건만 그래도 그노래에는 그들만이 늣길수잇는 얼러의、흥흥과 맥박(脈搏)이 잇다。

길림이는 어느때、십전ㅅ자리 밧성영화에서 본 한장면이 생각낫다——어떤 주점의 녀자가 면경을 드려다보며 세상을 원망하듯 구슬픈 코ㅅ노래 부르든것을。

그는 정말 당나귀처럼 업듸려 곗방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기여간다。

猛獸師의아들 올렛스、피마리와 잣키어、쿠—파—의 主演映畫

라디오

十三日 (金曜)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라소레라…보렐—言록作曲 二、晩鐘…마센네作曲 三、카르멘拔萃…비제—作曲 알파하모니카밴드 指揮 金生峰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算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 "言語와感情" 李熙昇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방아타령 三、楊山道 四、青春歌 五、漢江水打令 六、노래가락 玄山玉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봄노래…멘델스존作曲 二、에올리안、하—프…스미스作曲 三、몬·슈—망作曲 四、洪牙狂利想曲 第六番…리스트作曲 李興烈

◇同九 連續野談 『大入度胸』(一席) 庾秋岡

◇同九時三〇分 時報

◇同九時三〇分 東星商業新入生發表

第一送放

◇午後六時 (東) 少年音樂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科學趣味講座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大) 花籠

十四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東) 器樂獨奏 一、木琴 小林宗太郎外 二、하—모니카 福島常雄 三、맨돌린과기타— 田中常彦 月村嘉孝

◇同三時一五分 講演 『春郞과女性의注意』 盧天命

◇同六時 이야기 金汶植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最近의獨佛關係』 徐椿

◇同八時 唱劇 春香傳中『新延마지하는데』 丁貞希 吳太石 金世俊 曲明洙 丁元燮 趙素 趙鬷鎬

◇同八時四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漁夫詞 金鳳仙 徐山玉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守

◇同九時 連續對談 『大人度量』 (第二席) 庾秋岡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東)器樂獨奏

◇同二時 婦人時間

◇同六時 (名)어린이日本史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七時三〇分 (東)舞蹈劇

◇同八時一〇分 (廣)浪花節

◇同九時 時事解說

十五日 (日曜)

◇午前 十時三〇分 第二高普新入生發表

◇午後 零時三〇分 第一高普新入生發表

◇同零時五〇分 맨돌린獨奏와合奏 一、合奏 가、소나티네…크레멘티作曲 나、벳노레…파로니作曲 二、맨돌린獨奏(맨돌린…李興培 기타—伴奏…高橋功) 가、離別歌…살토리 作曲 나、자장가…이린스키作曲、다、가봇트…카라처作曲 三、合奏 가、春愁…武井守成作曲 나、櫻草…살토리作曲 城大맨돌린部員 指揮 山野上牧夫

◇同一時二〇分 古談 『吳次順의死』 白岳

◇同一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 龍山그라운드로부터 럭비—京城師範 中繼京城 鐵道局—水原高農

◇同六時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道德生活의冥意』 李東旭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夫婦』 一幕 【配役】 鐵涞…河一環 그의妻…朴珍玉 외치구…南二龍 下人…李牛進 店員…崔秉洙 放送劇協會 演出 李貝 效果 楊薰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興打令 四、방아타령 五、양산도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同八時三〇分 菁律『集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沈淸歌』 金綱鍵 沈龍 鼓手 九

—朝鮮交換放送—

◇午後一〇時 (哈爾賓으로부터) 一、三重奏 『세레나데』…토젤리作曲 二、체로獨奏 『白鳥』…상사—ㄴ스作曲 三、三重奏 『悲歌』…브라스트—드作曲 四、바이올린獨奏 『冥想』…마스네作曲 五、『라이—스로부터』…『라보시—』…피르ㄴ作曲 三重奏 바이올린 제코리체브 체로 지보스트렘 피아노 에스포스트렘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滿) 講演

◇同一時二〇分 (東) 歌謠曲

◇同一時四〇分 (東) 芝居囃子

◇同二時一五分 (東) 少女歌劇

◇同六時 (大) 連續漫畫劇

◇同八時 (東) 長唄

◇同八時三〇分 (京) 寄席中繼

☆曆☆

三月十四日 (土) 二月陰辛卯小(二十一日) 乙未·金·女·定

●祭祀裁衣納財에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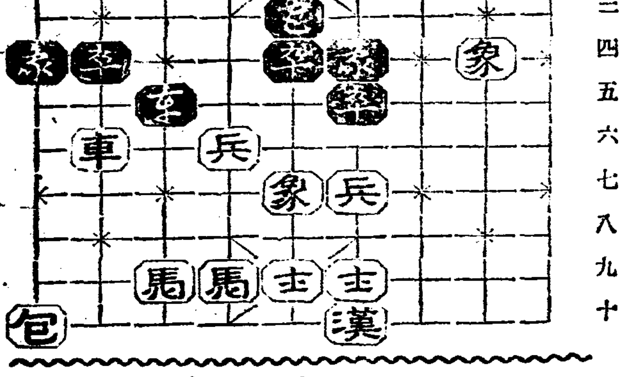
●潮齡六日(满十二日)

●春分二十一日(陰二十八日)

將棋名手對局譜 (十)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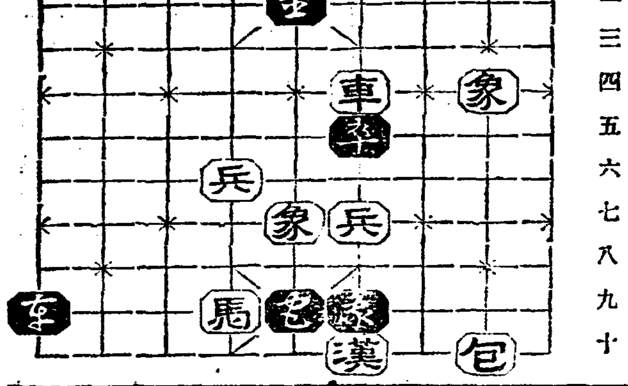
先手 漢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九十手圖▶



◀百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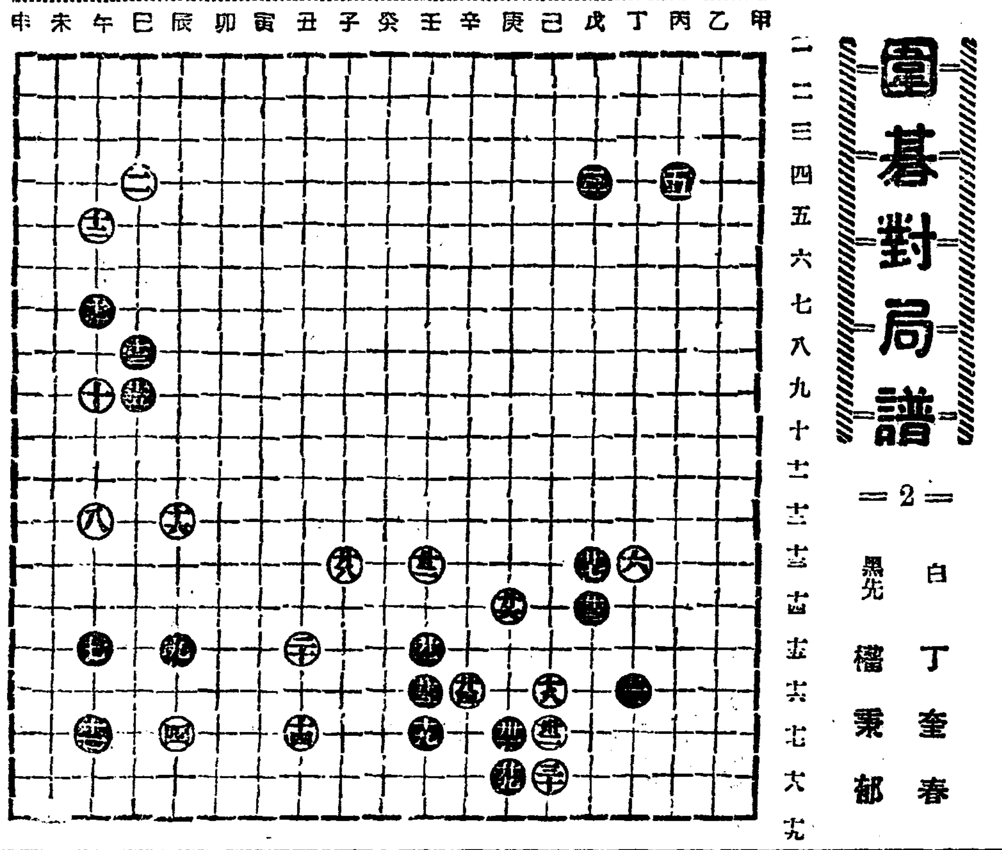
辛六車—辛四打卒 庚五馬—庚九打馬 辛四車—戊四打卒 壬四包—庚七 戊四車—庚四 庚九馬—壬九 壬十包—乙十 庚七包—丁九打士 庚四車—丁四打象 戊三包—戊九打士



圍碁對局譜 =2=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檀秉郁

●一七	午의十七
○一八	己의十六
●一九	壬의十七
○二〇	丑의十五
●二一	壬의十五
○二二	壬의十三
●二三	戊의十四
○二四	辛의十六
●二五	壬의十六
○二六	庚의十四
●二七	戊의十三
○二八	子의十三
●二九	庚의十八
○三〇	己의十八
●三一	庚의十七
○三二	己의十七



◆觀戰者談

黑一七(午의一七)은 當然의 善策이다 白一八(己의一六)은 取勢上 適切이다 壬의一五에 先攻하야 黑의進出을 沮止策取勢에 有力하얏다는 對局感想 白二〇(丑의一五)은에 同意하고싶다 白二八(子의一三)은 此際不可避也

皮膚에도榮養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花印크림으로

脂肪性 五十五錢 一圓十錢

주름살을펴며——결을整齊하는

彈力잇는若肌에!

언제까지나——누구시든지 二十歲臺의 유란한살결의 그潑溂한美、그대로 갓게됩니다。

×

外出하신뒤에·물일하신뒤에·就寢前에는 이처지마시고 花印크림을 발너두십시오

×

여드름이나 거츠름을消去식혀 결은어엽부고——젊디젊게 살바탕을整齊하는花印크림의作用 그作用의微妙한快味는 就寢前에한번발르면 翌朝 鏡臺가報告하겟지요。

밀니는살결은주름살의원인

每밤、就寢前에花印クリーム로항상解하게맛사—지하면서살에발느고、그다음에就寢하시라。花印クリーム는皮膚의疲勞를이치게되며、皮膚組織에適當한榮養을주어花印クリーム特有의收斂作用을發揮하야밀니는살결을防止하게합니다。

여드름·거츠름을

脂肪分이化膿을이르키든지、또는必要한脂肪分의不足으로부터 이김으로써、그것을完全히防止함에는花印クリーム로여드름의原因이되는쓸데업는脂肪分을吸收하며、살결의要求하는 脂肪分을새로皮膚面으로보내여준다。

결을압흐게안는完全洗顏法

비누로씻던가도ㄷ러안지는濃化粧이아무것정업시、花印クリーム를바르고가—제나脫脂綿으로씻스면술적깨끗이밀니며더욱히그뒤가가장좃은化粧下가된다고하는一石二鳥式의無水洗顏法이야말노살결에는第一입니다。

ウテナ 花印 コールドクリーム

우테나 크림

東京 久保政吉商店

ウテナポマード

フケを止め·毛質から美化する

煉味よく·洗落ちとてもいゝ

三〇セン 五〇セン

純植物性

私立中等學校巡禮 (二)

好壽敦女高

女庭球界覇權者 智德兼備의涵養

開城一의女子敎育機關

好壽敦女高普는 松都高麗의누이 學이나되는 開城唯一의女子敎育機關이다。

該校는 오른쪽官敎部 家事 … 의 하나로 昭和八年 五月에 四十萬圓의多大한工費를들여 理想的인 新校舍를 建設하얏는바 現校長 丙吉秀氏의努力이 크다 한다 現在修業은 四年制로 入學級이 配置되여 四百餘名의才媛을 充分히養育하고잇다。 在來舊校舍는 寄宿舍로서使用하야 他地方에서 공부오는學生들은 寢食의便宜를 適足케할수잇다 한다。

… 實驗室等이잇으며 또는 六百餘名을收容할大講堂이잇서서 每日아침마다 工夫하기전 新興會를開催하야 一般學生들에게 … 天을 … 有效 … 하고잇는 … 材가 가장마다 그런데 現在 이 學校의 學生들을指導하는先生님은 스무분이고 今春卒業生은 八十三名이며 …

人生은 … 宗敎的道德心을 길러준다 고한다 그리하야 同校의精神은 남달리 智德을兼備한 人格的女性을涵養하기에 注力해왓는바 在來卒業生側에는 社會에 나서서 … 원체 名聲이 … 記者가 應接室에 드러스자 즉각으로 … 快態케하는것은 장속 …

이가운데 … 實習等이나 無言中에도 學校의 孝誠이 만이숨어잇음을 자랑하고잇다 … 올하! 好壽敦女高普는 女子庭球界의 王座的 覇權을잡고 잇는 學校로구나 하는 생각이 記憶에 문득 떠올랏다。 그러타면 이곳학생들은 모다말 망냥이와가튼 氣質을가젓슬가? 아니다 모다가 女學生다운 純眞한 氣質과 비둘기와가티 溫和스런 態度를 갓고잇다 이것은 공연한 自畫自讚이아니라 一般社會側에서도 好壽敦女高卒業生이라면 家庭에 훌륭한 아가씨감이라는 定評이잇는것만 보아도 알수잇다。 (開城支局 一記者)

◇寫眞…同校舍全景과校長 丙吉秀氏

農振運動보다는 義務敎育을實施

財政은增稅나起債도無妨

黃海道會吳議員의絕叫

【海州】황해도도회에서는 현하 급무인 의무교육과정을 젓고잇는 도내농촌을 구출한다는 의미로 해마다 거액의 경비를드려 농촌진흥운동을 하여오는바 금번에도 농산어촌의 진흥시설비로 … 동시설비보조비로 … 소화십일년도예산에 계상하야 … 그진흥운동에 박차를 가하려하는데 지난십일 황해도회에서 송화(松禾)선출 오현석(吳玄錫)의원은 농촌진흥운동과 교육(敎育)문제와를 관련하야 농촌진흥운동에대한 청책와결함을 지적하고 농촌진흥의 근본해결책으로서 의무교육(義務敎育)의 실시를 절규하엿다 … 축소회활변이래 거액의 경비를드려 관민이 협력하야 농촌진흥운동에 부심중이나 그실정을 보면 하등효과가 업는바 이현상의 원인으로서 농촌진흥운동의 근본해결인 문맹퇴치(文盲退治)를 도외시한 근본책동에 잇스니 도당국은 농촌진흥운동의 정책과정으로서 먼저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야 … 사가업는데 당국은 재정난을빙자할는지모르나 증세(增稅)나 기채(起債)의 비상방법으로서라도 재정을 염출하야 초등교육정책을 강화시켜 현재문맹지옥에 헤매는 농촌재흥을 구출함으로서 농촌진흥의 근본 … 하고 통열한 질문을하엿다。

信川發展座談會

信川記者團의主催로 來二十二日壽座에서

【信川】신천기자단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바 신천의당면문제여러가지와 발전책에 대하야 내이십이일 신천수좌(壽座)에서 관계각방면의 인사를 모아발전좌담회(座談會)를 개최키로 되엿는데 당일로의 문제는 좌담회개최연구위원회(座談會開催研究委員會)에서 제안하기로하야 방금 준비중에잇다는데 당일관계되는 일반인사는 다수참석하야 토의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委員=朴奎禮 曹泰鎭 鄭鍾謨 柳萬鍾 洪信權

魚油의統制로 비누業者恐慌

【平壤】최근 평양부내의 비누(石鹼)제조업자들은 경영난에빠지어 허덕이면서도 거래처를일치안켓다고 큰손해를바다 가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잇는 비참한 상태를 일우고 잇다 이리유분는 주요원료인 어유(魚油)가 통제되기대문에 빗싸진것과 군수공업의 대두로『크리세린』등 부산물(副産物)로 비누를제조하여 연적을 옴니고잇기 때문에 소규모업자는 단연엽하옥바게되는것이다 이문제는 원료공급이안에라 전국적 문제로 대책을 강구치 안을수업는 중대문제라한다

苦待하든春雨! 釜山一帶에洽足

農家愁眉펴우展開

【釜山】남도지방에는 오래동안 한발이계속하고 비가오지안음 일반농작물 보리(麥)채소등이 말라하지못하고 고사상태에잇서서 농민들은 멸광의 마리옷하야 제기와 봄비오기를 고대하든바 어삼일전부터 흐린도를폐가게되고 또 지난십일오전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동 십일일오후오시까지에 약삼십미리가량 내리며서 농민들은 겨우수미를피게되엿다한다

木材를滿載한 荷車小兒轢殺

【北鎭】지난십일 오후삼시 운산군북진면 진동(雲山郡北鎭面鎭洞) 목재상 김준경(金俊慶)의 소유 하물자동차 평북제삼천이백구호를 운전수 최문익(崔文益)(二三)가 운전하여 동군 동신면신동(東新面新洞)으로부터 목재를만재하고 북진으로 향하다가 … 동일오전十시반경 북진면교동(橋洞)서가에 이르러 … 동동 어백 륙십이번지 김응성(金應成)의 양자김관성(金官二)(七)이가 무참히치여죽엇는데 원인은 전긔장소의 중앙가에서 역시 목재를만재하고 올서가는 두채의 우차(牛車)가 좌측으로 빗겨슴으로 자동차는 바른편으로 재나가라고 할순간 전긔피해아가 우차의 압으로부터 자동차를 못보고 뛰여건느려다가 바른편 압바퀴에 치어 다량의 피를토하고 현장에서 즉사하엿다한다

十年을하로가티 文盲退治努力

洪城의孔鎬五氏

【洪城】충남홍성군고도면가곡리(洪城郡高道面佳谷里) 공호오(孔鎬五)씨는 동리 문맹자를위하야 십년전부터 농한기를이용하야 매년야학을개최하고 문맹퇴치에 노력한결과 그간백여명을 문맹에서 구하엿스며 현재에도 십여명을 교수케하고 잇다는바 일반은 씨의노력에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貨物自動車에 小兒二名死傷

【金化】김화마루원 화물자동차가 화물을적재하고 운전수김옥현(金玉鉉)이가 운전하야 춘천을 향하야가는도중 암정리(岩井里)에서 우차를 맛나 교차하는찰라에 로변에서놀던 어린아이들이 중상을 당하엿는데 최수희(崔壽姬)(子)란년아는 절각에되엿고 김병길(金炳吉)(二)이란남아는 복부와 흉부에 중상을당하야 의사의치료를 바닷스나 아모효과업시 동일구시에사망하엿다한다

遊船이顚覆되여 同乘者二名溺死

密陽退老里의慘事

【密陽】지난칠일 오후세시반경에 경남 밀양군 부북면 퇴로리(密陽郡府北面退老里) 리동형(李東衡)씨와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義城郡占谷面沙村里) 유시환(柳時桓)씨와 그외 두사람이 전긔 동시압 부북수리조합 가산저수지(府北水利組合佳山貯水池)에서 배를 띄우다가 저수지 한복판에서 탄 배가 전복되여 전긔 두사람은 무참히 익사하고 두사람은 살엇다는데 두사람의 시체를 찾지 못하야 십일일 부산(釜山)에서 잠수부 두사람을 청하야 맹렬한 수사를 하엿스나 그날 일모까지는 한사람의 시체도 발견치못하엿다고하며 더구나 전긔유시환씨는 그동리 자긔매가에왓다가 그와가튼 불의의변을 당하엿다고한다

釜山府新年豫算 三百三十餘萬圓

新事業費六十餘萬圓

【釜山】부산부의 소화십일년도 일반회계급 수도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수입전 편성을 종료하고 지난 십일일부 토요(土曜)부윤이 사정중인데 그 내용의 대강은 일반회계약일백팔십만원 수도특별회계 사십이만원 부립병원 특별회계 삼십만원이고 이외에 제일특별회계 … 특별회계 … 를 합하면 총액 삼백삼십오만원이라하고 또 신규사업비는 약륙십칠만여원이라하고 그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갓다 한다。

一、支線道路鋪裝費(二個年) 一八〇、〇〇〇圓
一、[illegible]改修工事費(二個年) 一六〇、〇〇〇圓
一、下端峠道路改修工事費(二個年) 一〇〇、〇〇〇圓
一、博覽會積立費(二個年) 七〇、〇〇〇圓
一、下水道改修工事費 四四、〇〇〇圓
一、[illegible]新築費 二五、〇〇〇圓
一、火葬場增設費 二〇、〇〇〇圓
一、上水道擴張費(高地給水) 七七、〇〇〇圓

ㄱ호랑ㄱ君이ㅡ 幼兒竊取未遂

【洪城】밤중에호랑이가 침입하야 어린유아를 물어가지고 도망하려다 미수된 사실이 잇다 충남홍성군 구항면 장양리(洪城郡龜項面長揚里)박규철(朴圭喆)의집에는 지난오일새벽 두시경에 큰호랑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잇는 두살먹은유아를물고나가는것을 그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고함을 질느며유아를 빼아스려하엿스나 종시노치안코 그냥도망질치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몰려와 일대소동을 이르킨후 겨우 그유아를 빼아섯다는바 호랑이는 유아를바리고 즉시도망하엿다하며 유아는 생명에는큰 관계가업고 그의어머니만 경상을 당하엿다고한다

水原高農卒業式

【水原】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에서는 지난십이일오전 십시반 동교강당에서 본교제십사회 부치실업보습학교교원양성소(附置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 제구회 부치실업보습학교(附置實業補習學校) 제十회졸업증서수여식(卒業證書授與式)을 거행하얏는데 그졸업생과우등생은 다음과갓다하며 우등생중일, 이번이 안창수(安昌洙)군 강준석(康駿錫)은 모다조선인이라한다

◇卒業生 (가) 農學科 三十六人 朝鮮人九人 日本內地人二七人 (나) 林學科 二十五人 朝鮮人六人 日本內地人一九人 ◇優等 朝鮮人卒業生二人

家事研究會定總

【統營】통영가사연구회(統營家事研究會)에서는 창립된이후 통영부녀자의 가정적향상과 단체적생활조련에 일보향진으로 오즉 가사연구를 거듭하야 조선부녀게에 만흔공헌을 베푸려오든바 지난십일일오후한시부터 동부유치원에서 제이회정긔대회를 개최되엿는바 근래에 드믄 성황으로 다음과가티 토의사항을 결의하고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고한다

討議事項
一、今年度事業計畫의件
一、豫算承認의件
一、任員改選의件

會長 崔鳳善 副會長 [illegible] 會計 金必連 副會計 林[illegible] 書記 宋仮分 副書記 朴[illegible] 庶財部長 宋[illegible] 部員 徐[illegible] 敎養部長 金必連 部員 金[illegible] 家計部長 朴[illegible] 部員 [illegible] 調査研究部長 林[illegible] 部員 [illegible]

巽次頓의死 【115】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어차돈은 공주의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와서 가사 장삼도 그르지아니한채로 초人불을 압혀 가만히 안젓다。

이차돈은 무릎과 가슴에 공주의 몸人김이 따뜻하던 긔억을 누르기가 어려웟다。 옷에 무덧는지 코에 배엇는지 모르나 이차돈은 공주의 몸과 머리의 향긔를 마랏다。

어차돈은 공(空)을 관(觀)하야 이 번노를 씻스려하엿다。 그러나 도로혀 공주의 긔억은 반랑의 긔억을 끌고, 반랑의 긔억은 또 달님의 긔억을 끌엇다。 아조 떼어버렷다고 소멸한 줄로 미덧던 애욕의 번노의 뿌리가 마음의 어느 구석에 아직도 남어잇다가 공주의 몸人김을 초여고는 무럭무럭 일어나는것 갓탓다。

이차돈은 제몸의 업보가 어떠케 무서운것을 깨닥앗다。 그리고 그가 삼년전 고구려로 갈때에 그 조부 한마로이손이、『게집을 삼가렷다、게집을!』 하던 훈계를 생각하엿다。

『물에 연 입 가티』

하고 어차돈은 제 마음이 무슨 일에나 물들고、묻지아니하기를 원하엿다。 아까 공주를안엇슬 때에도 공주의 방에서나오든대로 곳 그 긔억이 소멸되는것이 마치 연 입이 물人속에 잇슬때에는 물과 함께잇다가도 물박게 나오는 순간에는 도모지 물이 뭇지아니함과 갓기를 원하엿섯다。 그러나 이차돈의 마음에는 공주의 몸의 따뜻함과 향긔가 무더서 떨어지지를 아니하엿다。

이차돈은 물에 빠젓던 새모양으로 여러번, 여러번 수업시 마음의 날개를 털엇다。 그래도 개와하게 무든 물이 떨어지지를 아니하엿다。

『모든 번노를 다 떼어도』 하고 이차돈 한숨을 쉬엇다 ―

『떼기어려운것은 사랑의 번노』 하고 이차돈은 더욱 마음을가다듬엇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은 다시 일어날것 갓지아니하엿다。 금시에 임금이 되라 하여도 그것에 터럭끗만치도마음이 움지길것 갓지아니하엿고 또 금시에 목을 베이다 하여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릴것 갓지도 아니하엿다。

『그러나, 그러나, 사랑의 번노는 다시 일어날것도 가튼데』 하고 이차돈은 백봉국사의 말을 생각하엿다。

『시님. 옛나종까지 남어잇는번노가 무엇이오니까』 하고 이차돈이, 영천암에 잇슬 때에, 어느날 백봉국사에게 물엇더니, 백봉국사는 이차돈을 물끄럼히 바라보다가,

『사랑의 번노』 하고 대답하엿다。

『이몸은 모든 번노까지도 떠낫것 갓사오나』 하는 이차돈의 말에 백봉국사는 벙그레 우스면서,

『아라한의 몸을 태워버린 재人속에도 사랑의 번노의 씨는 남나니라。 그것을 마자 소멸하여 버리는것을 열반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매로 석가여래께오서도 과부와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를 가까이 하지말지어다。 불법을 설하기위하여서도 가까히하지말것이어니 하물며다른 일로랴。 하섯나니라 하물며 녀자와 단 둘이 잇지말라 하섯고 만일 단 둘이 잇슬 경우여든 마음을 구더 잡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하섯나니라。 도를 닭는사람에게 가장 무서운것이 무엇인고? 죽는것쯤은 무서운것이 아니니라。 사랑의 번노야말로 죽음보다도 무서운 마라고 하섯나니라。 오직 묻지말고 물들지말도록 마음을 다글것이니라』

하고 꾸중으로,

『이차돈아。 너는 전생다생에 사랑의 번노가 만하 만흔 녀자와 인연이 잇나니라。 지나간 생에 이몸을 만나 도를 닥거거니와 그래도 예양에 못 끄는배 잇서 금생에도 너를 따르는 녀자가 잇나니라。 조심하렷다! 조심하렷다!』

하던것을 생각하엿다。

또 국사는,

『너를 따르는 녀자를 모도 불도로 인도함으로만 네 업보를 청정하게하리라。 그 인연을 내생까지 넘기지말렷다!』

하엿다。

起死回生의靈効

神通不測의藥理作用

小兒病에 靈界되야 時時刻刻으로 顔色이 날버지는 小兒의 臨末을 ... 것이다 거기에 對한 藥養은 樋屋奇應丸의 한알이 神通靈驗하게 起死回生의 大藥效를 내여可憐한 愛兒의 魂을 돌아오게하는 妙藥의 一服劑을 ... 하여주시오。 거기에는 貴下가 無條件하고 이 良藥을 禮讚하는 自畫像을 볼 것이다。

救急治病保健의靈効야말노

樋屋奇應丸이 奇應의 名聲에 안북그러울마 될되는 日時에 愛兒를 死境에서 救濟하야 全快케하고、病兒、虛弱兒를 劣性의 苦痛에서 바더서 健康線上으로 보내는것이 이 良藥의 目的이요 요려 분에 계 全幅的 信賴를 밧는 所以로 됩니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主効 경풍、선열、기절、보채고 젓을 너머 먹고、밤에 울고、비지나고、마마、 青便、下痢、胃腸病、其他病 한에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無代進呈 「育兒之友」

木舖 大阪 樋屋奇應丸本舖 株式會社

11—K—2

恩給

長期從底據證替 他에比較할有利 信用은 ... 特色은 照會問答

京城府杏園洞一六〇 鄭商會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 ○ 收入最良 ○ 收多無休 ○ 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電醫師 養成

責 進學 早期

平壤府將九里七四 認可 平壤高等電醫學院

혼자서 용보는 淋疾도 各種尿道疾患에 좃습니다 ………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ナショナル

時代는變遷하엿다

無責任한 長廣舌에 欺瞞되여서 責任업는 藥을 사는 時代는 지나갓다

最新醫學原理에 符合되고 高貴藥材로 研究調製한

世界的强壯劑 네오톤토닉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食慾減退、產後、一般虛弱及疲勞、蓄膿症及貧血、消化障碍、胃腸炎、慢性氣管支加答兒、腦溢血、神經過敏、神經沈鬱狀態、歇斯的里、心臟病、腺病質、飲食中毒

비오톤토닉榮養作用圖의內容과價値

▲ 求次第上記네오톤토닉說明書附榮養作用圖解進呈 ▼

社會藥製三봇아國米 元造製

東洋總代理店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經濟解說

"米穀事情趨向"
殘存米發表를보고 (一)

申泰翊

그동안 米穀界에잇서 注目의焦點이든 三月一日現在의日本內地米 殘存高는 四千三百六十四萬六千餘石으로 前年同期에 比較하야 二百八十四萬三百石 卽 約六分의 減少라고 農林省으로부터 發表되엿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三月一日現在로써 日本內地에서 消費하고 남은 쌀이 四千三百六十四萬石으로 이것은 昨年三月一日現在에 消費하고 남엇든數量보다 約三百萬石이 줄엇다는말이다 그런데 이 在米量의數字에 依하야 米價에어떠한 影響이 밋치고 또는이것을 中心으로한 米穀事情을 어떠케 보아야될가。

×

이三月一日現在의 殘存米에對한 發表를 가지고서 昨年産米의 自體材料는 다 나왓다고 볼수가잇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하면 米穀自體事情으로 細密解析한 材料를 들수도잇지만 大體根本的事情으로는 첫제 當年産米가 만헛느냐 적엇느냐 卽 그豊凶에關한 豫想 둘재로 實際의 그收穫量이 豫想대로 되엇는가 하는點 셋재로는 前米穀年度에서 넘어온쌀과 十一、十二、一、二、의 四個月間 移入되는量을 합한데다가 新産米를 加하여가지고 新米穀年度初인 十一、十二、一、二의 四個月間 消費된것을 빼여놋코 남어지는 쌀 卽 三月一日現在 日本內地를 通하야 쌀이 얼마남어 나 잇느냐 하는 그數量의多寡로써 이産米의 自體材料는 더 나올것이 업는때문이다

×

이미 昨年産米에잇서 그收穫이 얼마쯤 될것이라는 豫想과 그實收의數字 또는 끄트로 三月一日現在의 殘存米가 지 나온것을 가지고 생각한다고하면 米價도 昨年産米의 自體事情으로는 한고개를 너머슨것이라고 말할수가 잇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米穀事情은 今年에 새로히 展開될新米에對한材料를 中心으로하는것이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材料는 根本的問題으로 밤어가기가 어려운바이다 軌道만 밟어가기가 어려운 事情이 업더러잇슴이 事實이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日本內地米가 連二年間의 凶作으로 今年의 端境期가 接近됨을 따러서 昨年의 實例도 잇는바와 가티 在米不圓滑이 一層深刻케되지 안흘가 하는생각을 갓게하는 點이다 勿論 日本內地米에잇서 凶作을 材料로한 市勢가 이미 相當히 나타나잇슴으로 이것은 새로운 맛이 別로 업슬것이라고 말할는지모르나 그러치만 나는 凶作材料에對하야 두가지로 난와서 생각한다 첫재로 氣分的影響 即收穫期에잇서서 그收穫數字의 減少를 보고 實際에 直接凶作으로因한感情을 안밧지만 心的影響으로 凶作氣分을 띄이게되는것이다 이것은 곳 昨年十一月以後의 米價高이엇든것을 가리켜서하는 말이다 그러나 氣分을 떠나서 實際的으로 凶作의 影響을 밧게되는 時期 即 當年産米도 거의 다 먹게되고 또는 米穀年度도 新米 그年末에 接近되야 在米量이 顯著히 줄게됨을 딸어서 在米不圓滑이라는 實際的凶作影響이 米價上 나타나는때이다 이에 對하야는 昨年端境期의 米價高를 드는것이 適切한 實例가 될줄로 생각한다。

×

그러타고해서 凶作으로 因한 두가지의 影響이 後續的作用을 하게되는냐고하면 반듯이 그런것도 아니다 大槪는 이 두가지의 影響이 作用됨에잇서서는 中間的時期 即 過度的 冷靜期가 잇는 한 一時的反動期를 거치게되는 다 이에 對한 實例를 들면 即 昨年十一月以後米價高이엇든것이米出廻旺盛期를 넘어서가지고서 米價의 軟調를 示한바가 곳 그것이다 그럼으로 지금에잇서 가장 關心을 두게되는點은 압호로의 米價가 다시 實際的凶作市勢를 나타내게될것인가 그러치안코 그동안의 心的影響에 끄치게되고 말가함에잇서서 微妙한 關係를 맷고잇는만큼 그事情의 推移를 잘考察하는곳에 米價前途가 밝혀지게될것이다 (續)

新財政經濟政策 ◇…今日休載

物價高、勞賃不變
大衆의生活困窮
物價는世界漸落趨勢에逆行續騰
勞賃은떠러진채로不變

世界物價는 倂晴과가티 一齊續落步調를 演코잇슴에不拘코 朝鮮의 物價는 反對로 續騰步調를 보힘이 注目되는터인데 勞賃은 조금도上向되지안코 依然低調이어서 一般大衆의 生活難을 一層深刻케하고 잇는터이다 이제 朝銀本店調査═二月中旬의 京城物價와 勞賃은 如左하다。

京城都賣物價는 明治四十三年七月의것을 「一〇〇」으로 算出한二月中의 指數는 一八六、九五로 前月을 「一〇〇」으로하면 一〇〇、五二로、五二의騰貴이오 前年二月을 「一〇〇」으로하면 一五・六六으로 五・六六의 騰貴이다。

京城勞賃은 明治四十三年七月의것을 「一〇〇」으로算出한二月中의指數는 一三四・六七로 前月中을 「一〇〇」으로하면갓고 前年二月을 「一〇〇」으로하면 도리어 九〇・一〇으로 低落되고잇다。

京城都賣物價指數

京城都賣物價指數는 如左한騰勢로서 二月指數는또最高를 示하얏다

七年一月	一四二、五六
八年一月	一六四、四三
九年一月	一五六、九九
十年一月	一七四、九三
三月	一七九、一二
五月	一七八、八二
七月	一七六、七八
八月	一八〇、一五
九月	一八二、一二
十月	一八四、八二
十一月	一八二、一七
十二月	一八三、〇八
十一年一月	一八五、九八
二月	一八六、九五

二月世界物價

【東京電】 日銀調査═二月中의世界物價指數(但巴里는一月中)에依하면 前月에 比하야 巴里는三六、〇으로 騰貴하야 五、〇이 騰貴되고 昭和十年度의 平均指數인 三六六、二에 肉迫코저하야 物價膨脹傾向을 示한一方 東京에잇서는 〇、六騰落인 五、一、九이오 倫敦도 〇、六騰落인 一〇六、一 紐育도 一、三低落이紐育 一一三、九으로 低落되엇는바 最近의 步調를示하면 如左하다(大正三年一月基準)

	東京	倫敦	紐育	巴里
昭和九年平均	一四一、三	九九、一	一〇六、五	三六六、二
同十年平均	一四七、五	一〇三、五	一一四、八	三四七、五
十年二月	一四六、四	一〇〇、三	一一三、五	三四九、〇
五月	一四四、〇	一〇三、六	一一三、八	三五三、〇
九月	一五〇、二	一〇五、五	一一六、九	三四六、〇
十月	一五四、三	一〇六、〇	一一八、一	三五〇、〇
十一月	一五四、〇	一〇七、七	一一九、五	三五三、〇
十二月	一五三、六	一〇七、八	一一九、〇	三五七、〇
十一年一月	一五三、五	一〇七、七	一一五、一	三六三、〇
二月	一五三、九	一〇七、一	一一三、九	—

鎭南港의 米穀滯荷
昨年의約二倍

鎭南浦의 米穀의 滯貨는 港內外의氷結에 依하야 船舶出入不可能으로 二個月餘에 亘하야 漸增一途이오 目下米穀倉庫支店의在庫는 五十二萬三千七百十一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十七萬一千石의 增加로 約二倍인 外에 小樽丸其他의 積荷는 三萬石 以上에 達하엿다 한다 同港의 結氷은 昨今의 降雨와 氣溫低下에 依하야 意外로 速히 解氷하리라고 關係方面에서는 期待코잇다한다

米日爲替暴落

【紐育十二日發同盟】 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比較하면 賣二十八弗九十五仙으로九仙低이오 買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十仙低이다

東京爲替(十三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一片三十二分三十一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十三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十一 買 一志二片

水産聯合會 四月初創立

鰮粕統制의 生産業者代表機關인 水産組合聯合會의 組織은 咸南北、江原等 關係三道의 水産組合에서 各其 總會를 開하고(咸北十一日、咸南二十一日、江原十五日) 其承認을 經하야 四月上旬 新設認可를 受할豫定이라한다

朝窒硫化鐵自給策

朝鮮窒素에서는直營、代行、買鑛의三方法에依하야 朝鮮內의睡眠硫化鑛山의 積極的開發探採과 原料硫化鑛의 自給策을樹立할 準備中이든바 第一期計畫이 樹立되엇다한다 이結果今夏의新肥料年度까지에는一個月一萬噸의島內化硫鑛內의自給을할豫定이라한다

實際産金額
七千萬圓以上

朝鮮의 産金額은 十年度槪算이 豫想과 背馳하야 前年에比하면 八百萬圓增加인 四千九百萬圓을 示함에 지나지못한 狀況이엇스나 朝鮮의 産金事業은 擴張을 繼續하야
一、探掘金山은 昨年中에 七百有餘가 激增되엇다
二、昨年中의 市中金鑛買高는 前年比 二倍의 增加로서 船輸送、鐵道輸送도 倍以上의 增加이다
三、德力、朝銀에온 實鑛金額도 飛躍的으로 增大되엇다
等의實情으로보아 이産金額은疑問視되는데 이原因으로서는昨年度부터의 所得稅賦課關係로各産金業者가 極히적게申請한것이判明되엇다 時價에依한産金額은으로보아서 確實히 七千五百萬圓을 突破할것이라고 總督府 鑛山課에서는 推定하고잇다한다

長箭에銀行支店
殖銀서認可申請

殖銀에서는 近年江原道沿岸의鰮漁가殷盛함에鑑하야 漁業의中心港인 長箭에支店을設置코저 目下認可申請中인데 同地에는從來金融機關이업고 僅히金融組合의支所만 잇섯슴으로 殖銀支店이認可되면 同地方의金融은 便宜케되리라한다

通貨와公債政策
急激한變化는回避
馬場藏相의補足說明

【東京電話同盟】 馬場藏相은 過日第一次第二次聲明에 關하야 十二日記者團에게 對하야 如左한 補足的說明을行하고 今後에取할 通貨와 公債政策의 一端을 말하얏다

財政方針에關한 聲明中에 低金利政策云云이라한것을 世間에서는 最近 早晩金利水準을人工的으로 變하야갈것가티 解釋하는者잇스나 政府는 억지로人工을加할생각은업다 金利는 全面的平準化의 傾向이다 農村産業方面에 相當히 高率의것이 잇슴으로 今後도 金利負擔의輕減을圖함이 必要하다 그러나 此等 政策을 如何한 時期에 如何한 方法으로서 講究할지 輕輕히 言할수 업다 公債政策에 對하야서도 同樣이다 現在 發行方法에 依하면 아즉 公債消化가 不圓滑하다고는 할수업스나 從來의 公債漸減만가지고는 萬一의 境遇에 處할수업다 卽事態不得已하야 公債를 增發하면所謂赤字인公債의 念慮가생길것이勿論임으로 此際眞實히 考慮할問題이다 何如間 急激한 政策의 轉換은 極力避할것은 再三述한바오 다만 多少의 變化를 항은 그時期 方法을그릇치지안코갈터이다

移出白米에壓迫
東京서玄米搗精으로暴利取得
當路者對策에腐心

從來大部分玄米로 移出되든 朝鮮米는 近年에와서 精白米로서 移出하는 傾向이 顯著하여지며 朝鮮의 各移出港에는 精米工場이 大大的으로 勃興하게되엿슴은 朝鮮米界를爲하여서나 勞賃階級의 生活問題를 爲하여서나 一段의 進步라고볼現狀인데、近者朝鮮米의 消費市場인 日本內地에서는 朝鮮米에對한 對抗的氣色이 漸漸露骨化하여 農村에서부터로도 重量으로나 其他米價等에對하여서도 朝鮮米에追及하여오는바 만흔데 朝鮮米의精白米에對하여서는 小賣商等이結束하여 人爲的壓迫을하고잇는것이잇다 總督府農林局의 調査에依하면 東京方面의 朝鮮精白米價格은 移入되는것을 꺼리어 精白米는 入手되는대로 日本內地米와 混同하여 버리어 朝鮮米의 名色을업시하고 그代身 朝鮮玄米를購入하여 搗精하여 販賣하고잇다 其間의價格關係를보면 最近 東京深川正米市場의 市勢는 ④四等玄米는石二十九圓七十五錢으로 玄米一叺을搗精하면 五十八키로 量生産할수잇서서 朝鮮米一石은百四十五키로는되며되다 그런데 東京公設市場의 白米小賣價는每十키로에 一等二圓七十錢 二等二圓六十錢 三等二圓五十錢이고 石으로 換算하면 三十九圓五十錢이 되고 白米를 生産한다하면 搗精費를 石一圓으로 한다해도 三十圓七十五錢밧게안되어서 結局東京의 市場小賣價와는 八圓四十錢의差益을내이게된다 卽 東京方面小賣商等은 朝鮮玄米一石搗精하여八圓四十錢의 莫大한利益을 取하고잇는셈이다 現在東京에만도約百萬餘石移出을 보고잇는데이와가튼 不當한 虐待를밧게될 것이 不當한 問題이다 一面으로보면 正米市場價를 多少高하어도 畜갓가는나 그것은 淸算市場의 市勢에 準하게되는 關係로 玄米時勢를 올리지못하는以上 精白米가 移出되여 日本內地米와 價格으로 競爭케될도 當然한것인데 實際消費市場의 內譽는그러치못하여 不當한取扱을 밧게되는것이어서 適宜한 處置가업지못할만한 問題라하야 論議되고잇다

殘存米減少로
淸算、正米昂騰

三月一日 日本內地米의 殘存米가 四千三百六十四萬六千七百二十六石으로 比前年同期 二百八十四萬三百五石(約六分의)減少 이엇슴으로 이것이 買氣를 刺戟하야 十三日 朝淸算市場은 大阪十五丁高 仁川二十丁高로上放寄되고 朝鮮內各地正米市場도 百仁各三十錢乃至五十錢을 比率하야 群山三十錢高 大邱二十五錢高로昇騰이잇엇다

今後는重工業
日本內地資本集中에

昨年에 朝鮮을目標로事業進出이 相當하엿스나 今年에도 三陟開發과 洋灰工場이 傳함뿐으로 所謂日本內地資本의進出은 一段落을告한狀態이다 이에對하야 總督府殖産局에서는 繼續하야 日本內地資本을 誘致할意向이며 特히 朝鮮資源開發과 重工業의振興에 着眼하야

一、資源關係═原料賦存의 利用을비롯하야 硝子工業、窯業、石灰窒素製造等

二、重工業關係═製鐵所의 內實現及 機械製造工業을助長育成의 二方面에全力하고 殖産局長等도助長策에 腐心中이라고한다

朝郵增資確定

朝鮮郵船의 一千萬圓增資件은 總督府의 認可를得한 商工課와 總督府의 事務工作에 移하야 四月末定時株主總會에 附議正式決定키로되엇다

取引停止

(三月九日)▲飮食店 京城府鍾路四丁目一二一番地 趙展洪▲(三月十日)▲酒造業 京城府孝悌洞一〇九番地 金仁會朴學明 ▲京城府元町一丁目九四番地 朝鮮一고무工業所 李完學 ▲運輸業 京城府永樂町一丁目三六 諸國志錦 ▲京城府觀水洞九二番地 合資會社原光社代表 吳金潤亮 ▲京畿道高陽郡纛江面東幕上里二七六番地 李允變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吉州工場再入札=北鮮製紙吉州工場은 工事指名請負者가 各各五日入札한바 豫算超過로 入札或은 最低入札者와 契約키로 되엿다고

○全鮮電話架設=遞信局의 新年度電話架設은 不成立豫算으로因한 計畫은 全朝鮮三千個로 新年度는 豫算成否를 不拘하고 豫定대로 三千個의 架設을할모양이다 그러나 今年의 架設申請은 이미 一萬七、八千件에 達하며 十六日로 끗날터인데 當日까지 無慮二萬五千을 突破하야 豫定의 約八倍에達할모양이라고

株式 双方警戒 採合
商況【十三日】

前場採合 今前場은外電이 倫敦六十一弗八分五로暴落、米日爲替二十八弗九十五仙으로 九仙暴落等 强弱材料兩立하야 一息이되고 當地도 平凡寄付後 一伸이잇스나 高價는 依然壓抑되어 結局採合裡 大引이잇스니 卽

跛行商勢示現

新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은 아즉 그具體的內容이 發表되지안엇스나 新藏相의 數次聲明과 補足的說明에依하면 現經濟機構에急激한變革을招來할政策은 極力回避할것이오 增稅도 十二年度에 實行할것이 判明되엇슴에따라 事業株부터反撥되고 獨佛國境緊張으로 日産、鋼管等時局株의 騰勢가顯著하나 東新가튼 投機株는 大慘落直後로 비록實目標를 喪失한軟派가 突込를敢行치안는터이나 投機抑制政策에依하야 反撥力이 殆無하기를 價位關係에依한惡目買도 招치못하며 간신히 三、四圓反撥되고잇서 百四十圓中心의 採合일뿐이어서 跛行商勢를 演코잇는터인바 今後도 低金利傾向이 堅實株의 根底를 支持하겟는反面 投機株의 活躍은 當分絶望狀態에 잇는모양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北鮮製紙 一三・九〇 ▲朝鮮石油 一一・〇〇 ▲人造肥料新 四四・〇〇 ▲帝麻新 二四・〇〇 ▲石川島新 三三・一〇 ▲電化新 三三・五〇 ▲不二興業 二七・一〇 ▲大同電力新 三三・五〇 ▲滿洲炭礦 一一・三〇 (取引高 二〇枚)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三、四〇
佛貨四分利 一八八、七五

期米 殘米減少 續騰

前場突高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七十六錢止와 共히 二十九圓六十五錢에寄를止한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九十三錢인 十五丁高를 報하고 當市場은 二十九圓八十五錢인 二十丁高로 寄하엿다가 九十一錢까지 暴騰하고 場을 給하後阪地八十五錢으로反落하야 七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七十六錢에 止場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九圓七十九錢에 三丁高로 始寄後二十九圓七十九錢에 止場하다

東新戾賣續行

國策遂行에는 財政基礎가 鞏固하여야만 達成될것으로 産業界를 奏效식히려가튼 統制經濟强化나 急速한增稅는 아할것이라는것이 新藏相의聲明으로判明되고 今後는增稅의必須條件으로서의低金利徹底、財政膨脹에依한인플레 再然期待等으로 再開當時의 恐怖人氣는安定되어 昨日來鐘新日産은 訂正高를 演하야日産가튼것은 七十五圓臺로 도리어 事件前日보다 高價에올랏스나 細投機株인 東新은 依然二十圓가량低位에서 反撥力이 殆無하야 百四十圓臺로 往來할뿐인데 齊藤中野等 買方首腦將軍의 總退却에依하야 因果玉이 一掃되엇다하나 統制經濟를 豫한 引所株는 戾賣가續行되는터이다

後場軟狀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三十錢 大新八十一圓八十錢 鐘新百五十三圓丁 朝取七十圓丁 朝新二十七圓八十錢에 堅高寄後軟狀裡에 大引하엿다

今日財界 (十三日)

◆米
仁川期米 先限 二九・七五 / 大阪期米 先限 三一・七九 / 堂島正米(江川)一等 三二・七〇 / 正租(仁川)三等 一石 [illegible] / 一斤價 [illegible]

◆綿
朝新 [illegible] / 東新 [illegible] / 日産 [illegible]

◆金融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三品 [illegible]

殘存激減으로
市勢又復昂騰

三月一日現在 日本內地殘存米는 第一次第二次發表의 減少率로보아서 昨年同期에比하야 百五、六十萬石의 減少밧게아니될것으로 豫期하엿스며 市勢도 昨朝軟保합을 보이엇는데 第三次發表인十四地方의分이 激減되어 二百八十四萬三百石의減少로 一時一般의 豫測하든 三百萬石減少說이거의當으로得하엿다할수잇다 그럼으로 市勢는各地共히 依然激騰하야 阪地는三十一圓九十錢臺로 當地는二十九圓八十錢臺로 突返하엿다 旣히 行動을 一巡하엿다할수잇슴으로 更히 더强材料를 少도 返하엿다 要하면 殘存米의 減少를 엿한 持米側은 前途需給의 不安이 업지안흘것을 豫期하는 關係上 賣惜方針이 又一層强固하지안흘가하고 그러면春暖期의 瓦落도 亦期待키 難하지안흘가한다

前途需給考察
過去消費보아

三月一日 現在高는 四千三百六十四萬六千七百二十六石 前年同期에比하면 二百八十四萬三百石의 減少인바 十一月부터 今年二月까지의 四個月間 消費高는 二千九百十五萬五百四十一石인데 此를昨年同期의 消費高 二千七百五十四萬三千石에 比하면 百六十萬七千石의 增加를 示하엿다 此는 昨年度의 凶作의 結果 昨年度米穀年度의 在米稀薄으로 新米早食이 主因일모양이다 그러면 過去四個月間消費高二千九百十五萬石을 目標로하고 앞으로의 八個月間 需給狀態를 一考하면 過去四個月間 消費高에서 酒造米約四百萬石과 新米早食의 分百六十萬石 合計 五百六十萬石을 控除하면 二千三百五十五萬石이 되는바 此의四個月間 平均消費는 五千六百三十萬石이다 그러면 압흐로 八個月間 消費高는 四千五百四萬石으로 보지안흘수업다 그러나 春暖期와 夏季에

各地正米

▲賣方=山口 田中賣 地場實需 來客買 ▲買方=朝鮮自己 地場買

東城奔騰 天候 不良으로 惡氣味를 보고 旺盛하얏는데 新米高를 보고 思惑買氣가 旺盛하야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急騰 淸算期近으로 賣進이 活氣되어 實物이 急激히 적고 期米淸算의 米遂高에 刺戟되어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

釜山强調 天候恢復과 共히 出廻되고 定期高로 市況이 自然强調이나 移出側은 갈증할려지안코 高價警戒氣味이오 角ク等二十九圓十五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八錢

大邱上放 殘存米數字를 보고 需給窮屈을 必然的이라하야 思惑側의 買氣가 相當히 旺盛하고 唱은 一氣로 二十五錢上放인 角ク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四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躍進 不作의 需給窮屈難免이라고보아 今朝定期寄付昂騰을보고 日本內地의 買氣再然하고 地場의 假需要的 買氣擡頭로 取引이 相當히 進捗되고模樣으로 唱은 一擧로 三十錢躍騰을 告한 菱ク三等二十九圓二十五錢 四等 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木浦伸惱 淸算高를 移하야 買氣가相當하나 春暖變質期를압두고 産地 賣物이 逐日增加되

堂島前場頑强 【大阪電話】

三月一日現在殘存米는 二百八十四萬石의 減少라는 豫想과달너 一般의豫想보다 減少를示하얏다 需給不安難免으로본 强氣의買가 猛烈하야 九十一錢으로 寄付上放이잇스나 其後一部弱氣의 指實賣物潛在로 軟化되엇는데 止際引戾하야 結局은 八十九錢에 頑强히止하얏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 東新의暴落야 거구하다 事件前에는 東京短期四十餘萬株大取組壓迫때문에 올느지못하더니 ▲事件突發로 半數解合再開劈頭 齊藤中野等 大小買方總退却으로 因果玉이 一掃되어 한開手術을 하얏스나 投機抑制 政策에눌려 떠러진채 不勢▲이러다가는 東新의豪華時代는 永永오지안흘것인가? 歐州第二次大戰이나 꿈꾸고기다릴수밧게 별수업다는것은某場人의嘆息▲過度政策悲觀 恐怖이던 事業株는次次恢復되어가며 低金利、財政인푸레期待로 統制經濟時代인일을 알면서도 前途를期待하는 反面에納外는 上進難期之勢이니 當分投機株인 東新에는 過賣反動跛行商勢繼續일뜻▲東新은 원악大慘落되리라 軟派도突込치안코니反動高도 別로크지안흘모양

米 日本內地殘存米는 四千三百八十四萬餘石으로 豫想外의激減을 示하엿다 ▲이와가티激減을 示하지안는다할지라도 前途需給의 不安이업지안흘것으로 後期하든바인데 今回發表로보아서 到底히 樂觀할수업는걸 ▲過去四個月間消費高는二千九百十五萬石此에 酒造米四百萬石과 早食分百六十萬石合計五千五百六十萬石을 控除하면二千二百五十萬石이되다▲그러면 過去四個月間食糧으로消費된것만은 每月五百六十二萬石▲此數字를 目標로하면 今後八個月間總消費는 四千五百四萬石이 되다 그러면 供給不足을 生하는 세음 ▲그러나 春暖期와 夏季에는 消費量이 얼마큼 減退될뿐만아니라 朝鮮米의 移出과 蓬萊米의 移入이 업지 아니하므로 不足하기까지에 이르지 안켓지만 大體需給의 窮屈을 免치 못할것만은 事實▲압흐로 『오시메』買의 方針이 得意?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直輸入商
內地糠麥 白麥 精白米 蕎麥 玄碎米 中粉米 白、赤粟 赤粟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金・白・銀 買賣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二一六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地方註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金要}

株式 期米 ㊄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二丁目四

住宅地分讓
光熙門外新堂里電車迄五丁
面積二萬六千三百坪
代金坪當金五圓以上二十五圓
賣渡方法全部又ハ分割
◦
鍾路六丁目十二番地
坪二千七百坪
代金坪當二十七圓以上五十圓
賣渡方法百坪以上分割
京城府光化門通一二一
康益夏

金融 十三日

◆海外經濟◆ 十二日
◆朝鮮銀行勢◆ 十日
◆日本銀行勢◆ 十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十三日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物價 十三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絲布市勢◆ 十二日
◆京城綿布◆
◆燒油冲價◆
◆錦糸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十三日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定代引日步◆
◆朝取短期◆ 十三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期米 十三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商品 十三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각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多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雄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爲替◆ 十三日